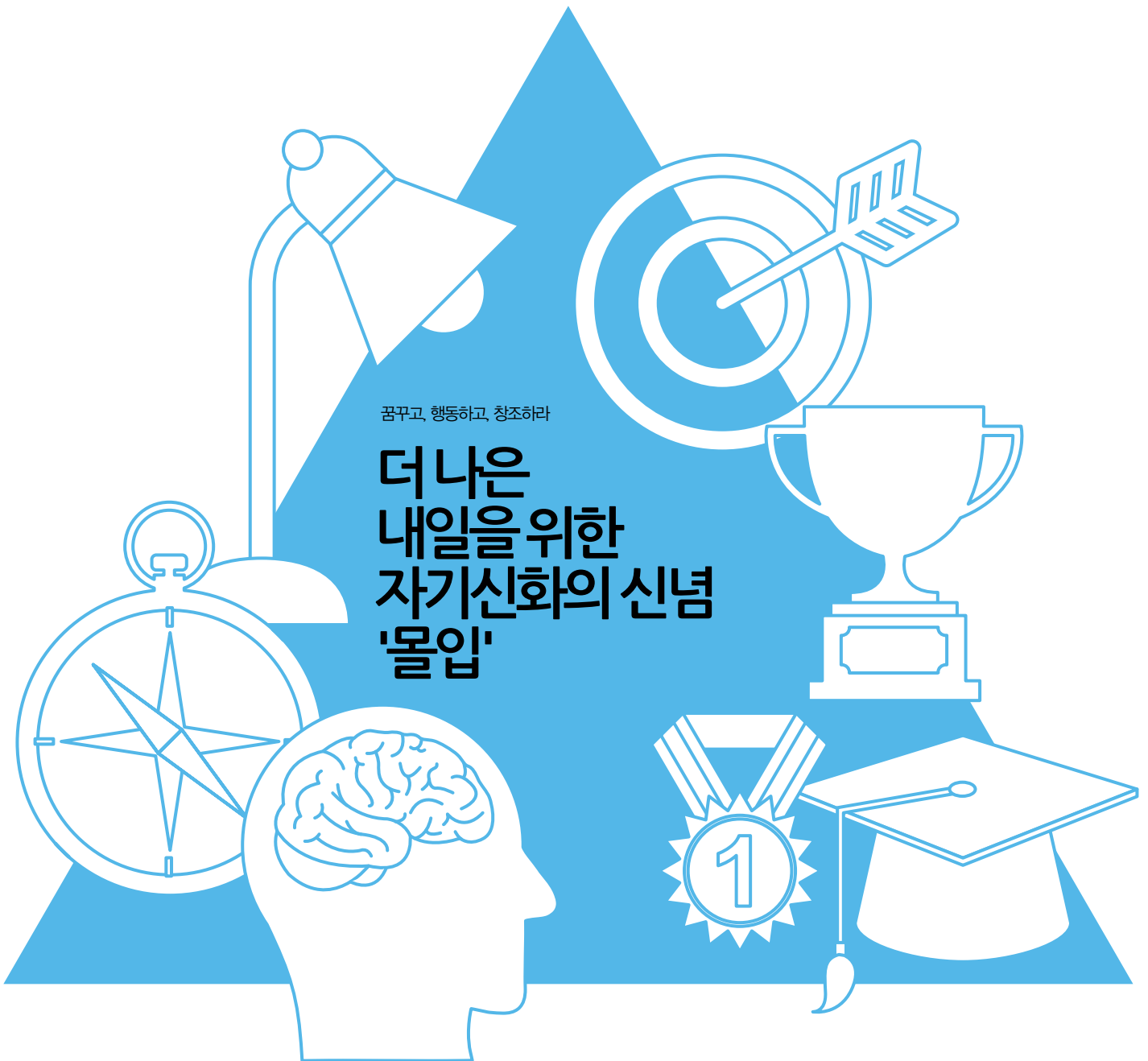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신화의 신념 '몰입'



세상을 밝히는 발명과 특허 이야기

발명특허

VOL.447
2014
JULY·AUGUST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는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발행일 | 2014년 8월 5일

발행처 | 한국발명진흥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발행인 | 김광림

편집·기획 | 한국발명진흥회 기획팀 박선민(02.3459.2727) www.kipa.org

편집디자인·제작 |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CONTENTS

**꿈꾸고,
행동하고,
창조하라**



06 IMAGINATION

몰입을 통해 스스로를 초월하다

08 ACTION

- ①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 ② KIPA 중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 & 40년사 발간기념식
- ③ 2014 원로발명인 간담회 개최

16 CREATION

빠질 곳을 알고 빠지는 것, 그것이 진짜 몰입



Cover Story

- ▲ 우리가 어떤 대상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기쁘고, 진심으로 행복한지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할애해서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이런 주목과 몰입 관리는 자기 자신과 삶의 실체를 조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창조성을 발현시키고, 재능을 꽃 피우며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줄 것입니다.



20

IP FOCUS

- 1 중국의 특허괴물 대처법
- 2 다가오는 로봇카 시대와 특허괴물
- 3 핵심 특허 기간 만료, 3D 프린터의 대중화 시대 열리나
- 4 인간의 유전자, 특허의 대상인가

36

발명가 사람들

대한민국 곳곳의 'IP 네비게이션'
컨트를 타워를 세운다

40

무한상상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빠르게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 인천지식재산센터

44

융합 콘서트

전자 향수의 시대가 온다

46

지식 더하기, 기술 나누기

김치 세계화를 위한 지식재산과의 동행
- (주)한성식품

50

생활 속 발명이야기

아이처럼 보고, 아이처럼 상상하다

52

IDEA 공작소

개성 가득 개인의 능력이 샘솟다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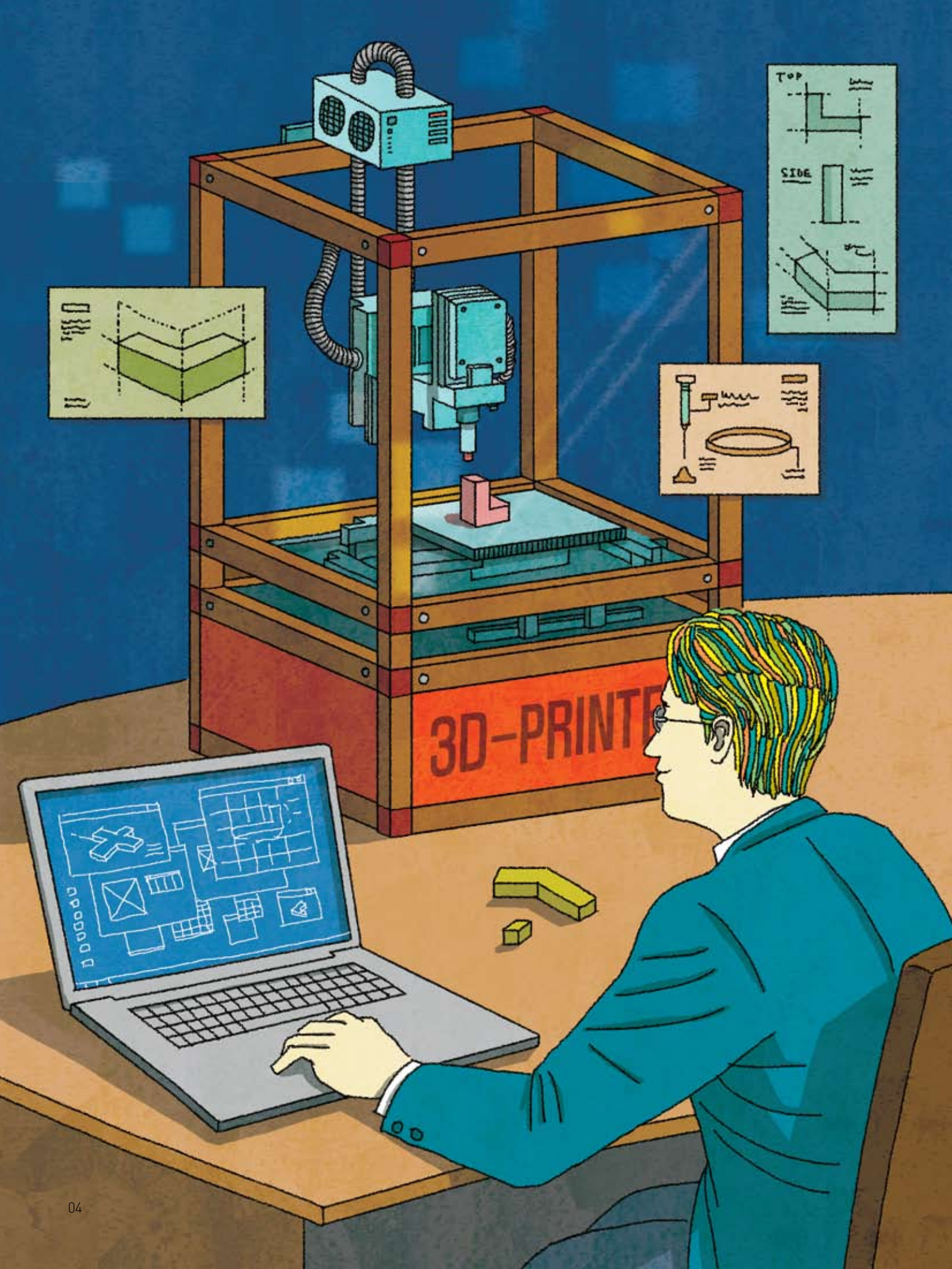
글로벌 동향

60

IP NEWS

64

KIPA NEWS





입체를 인쇄하다!

무궁무진한 3D 프린터의 잠재력



최근 3D 프린터가 우리의 삶에 미칠 파괴력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할 사건이 벌어졌다. 3D 프린터로 실제 발사와 살상이 가능한 권총이 제작된 것이다. 게다가 그 설계도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한바탕 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3D 프린터는 디지털 모델을 사용해 고형소재를 가지고 입체적인 물건을 만들어내는 장치다. 잉크젯 프린터와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원료를 분사해 한 겹씩 적층해나가는 것으로 원료 소재와 3차원 설계도만 있으면 누구라도, 어떤 형태의 물건이라도 제작이 가능하다.

이 진기한 기계의 역사는 놀랍게도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1년 일본 나고야시 공업연구소의 연구자였던 고다마 히데오가 원시적인 3D 프린팅 기법으로 최초의 입체물을 제작했다. 현대적 개념의 3D 프린터에 대한 기술적 기반을 확립한 인물은 미국의 연구자 찰스 헐이다. 그는 1984년 스테레오리소그래피(stereolithography)라는 입체 모델링 인쇄 기법을 창안, 1986년 특허를 획득했다.

3D 프린터는 가격이 싸지고 소형화되면서 대중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활용 분야도 보석, 제화, 산업디자인,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자동차, 항공우주, 치의료, 교육, 지리, 토목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의료용으로는 이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인공뼈 소재를 이용해 유실된 뼈 부분을 대신하거나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 전에 실제와 거의 동일한 인체 구조물로 미리 연습을 하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잉크를 사용한 제품 생산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오 잉크는 세포나 인간의 인체 조직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를 3D 프린터에 적용해서 신체 일부나 장기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로, 지난해부터 조금씩 가시적인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3D 프린터의 최대 장점은 신속·정확한 제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부품이 여러 색상을 가지도록 만들 수도, 여러 소재로 하나의 부품을 만들 수도 있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단연 제품 생산의 '민주화'다. 모든 물건을 제작할 수는 없지만 3D 프린터는 이론상 값비싼 공작 기계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도 제품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3D 프린터의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몰입을 통해 스스로를 초월하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신화의 신념 '몰입' ①

우리의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돌아보면,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좀더 '신바람'과 '영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글_윤홍식 흥익학당 대표 ·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몰입> 저자

몰입, 그 놀라운 신비 • 그 답은 바로 '몰입'에 있다. 아무리 지루한 일상을 사는 우리들이라도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고 영감이 넘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취미'로 삼고 진심으로 즐긴다면, 그것에 대해 창조적인 영감을 얻게 되며 우리의 내면은 늘 희열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몰입'이다. 몰입은 '신바람'이며, '사랑'이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신바람이 날 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내면에서는 긍정적 호르몬이 샘솟아 심신을 기쁘게 할 것이며 멋진 영감과 창조적인 생각이 머리에서 샘솟게 된다.

또한 멋진 생각만큼이나 멋진 행동이 마찰 없이 절로 나오게 된다. 이를 우리는 "신바람이 난다!"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상태를 바로 '몰입의 상태'라고 부른다.

대상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다른 공공이를 품고 대상을 수단시하면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상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온전히 몰입할 때에만 우리는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창조적인 생각도 이러한 사랑의 상태, 몰입의 상태에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일상의 업무가 취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몰입하고자

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일정한 성과를 내도록 내몰기 때문이다. '취미(趣味)'란 본래 대상이 지닌 아름다운 정취(趣)와 참맛(味)을 순수하게 즐기고 감상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다른 목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상이 주는 행복감을 만끽하고 즐기는 행위가 바로 취미이다. 우리가 자신이 다루는 대상을 '취미의 대상'처럼 일체의 이해득실을 떠나서 즐길 수 있다면 손쉽게 몰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몰입하고자 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대상을 대할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상념에 대해 단호하게 "모른다!"라고 선언할 수 있으면 된다. 우리는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정적인 상념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니 진심으로 몰입하기를 원한다면 부정적 판단이 일어나고 부담감이 우리를 압박해오더라도 그들을 모르쇠로 일관해 보자. 그러다보면 우리의 뇌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잊고 즐기게 되며, 마음은 차분해지고 내면에서 신바람이 샘솟기 시작할 것이다.

'대상에 대한 몰입'은 결국 '대상을 향한 사랑'이다. 대상에 대한 사랑을 방해하는 온갖 부정적인 요소들에 대해 "모른다!"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만 있다면 몰입은 저절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일상의 업무를 취미로 삼게 되면 매 순간 무한한 '행복감'과 '창조성'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취미를 누릴 때만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일상이 그대로 취미가 되어 매일 매일 최고로 신바람이 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일상의 매 순간에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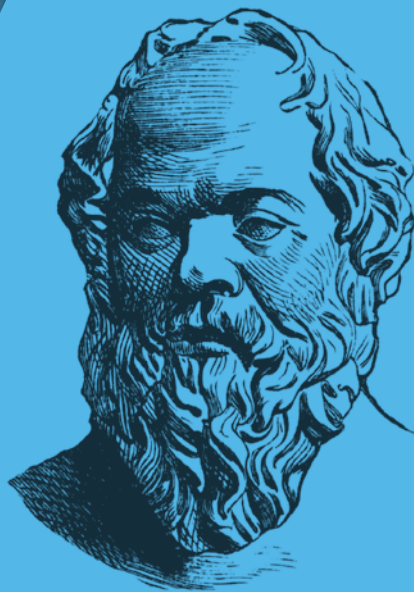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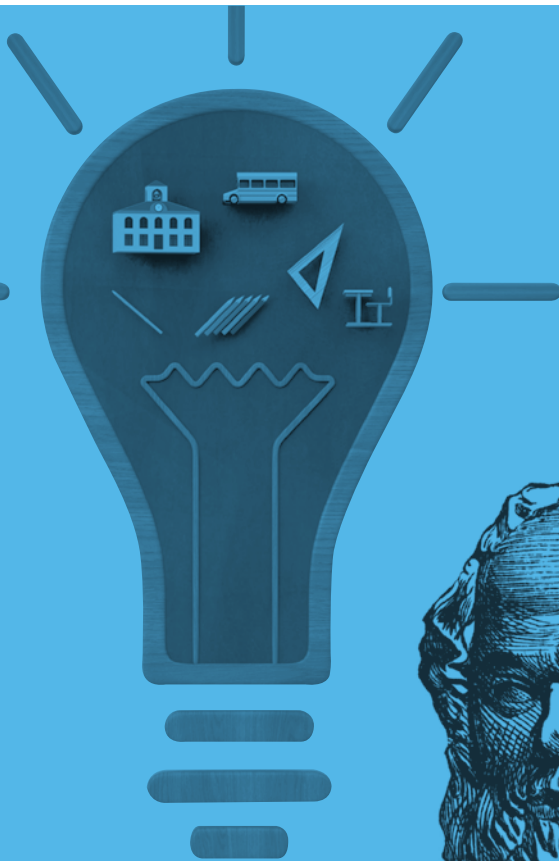
서양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철학적 문제를 풀 때마다 아고라 광장에서 밤을 새우며 몰입했다고 한다. 그의 위대한 철학적 성취도 바로 몰입에서 샘솟는 영감에 의한 것이었다. 위대한 철학자만 그런 것이 아니다. 위대한 과학자나 위대한 기업가도 모두 내면의 창조력을 끌어낼 수 있는 몰입의 달인들이었다.

혁신적인 발명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킨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도 젊어서부터 선불교에 심취했고 인도에서 명상법을 배웠다고 전한다. 그는 이렇게 습득한 몰입법들을 통해 '내면의

영감'을 끌어내는 달인이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몰입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상에 대해 부정적 상념에 빠지지만 않는다면 우리 모두 몰입의 달인이 될 수 있다. 무한한 창조성을 끌어낼 수 있다. **발명특허**

Transcend Oneself Through The Involvement



발명 꿈나무들의 상상과 도전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신화의 신념
'몰입' ②

제27회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Think Change, Make Chance. 생각을 바꾸고 기회를 만드는 현장. 발명 꿈나무들의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는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다. 발명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개최된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지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총 사흘에 걸쳐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전시회에는 지난해보다 한층 더 깊어진 학생들의 사고력과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었다. 여기에 더해 학생들이 각자의 상상력을 겨루는 창의력 챔피언대회까지,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대한민국 학생들의 발칙한 발상이 한 데 모인 뜻 깊은 자리였다.





01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 (왼쪽부터) 조은경 여성발명협회장, 이태근 특허정보원장, 승인배 조선일보사 단장,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 이준석 특허청 차장, 고영희 대한변리사회장, 이인정 삼성전자 전무, 고기석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단장이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02**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즐기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반짝 •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수원 화성의 성곽은 목민심서를 집필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당시 정조는 서른 한 살의 정약용 선생에게 수원 화성의 성곽을 쌓는 연구를 맡겼습니다. 젊은 인재에게 이러한 일을 명한 것은 아마도 정조가 정약용 선생의 학구적이고 논리적인 성품을 꿰뚫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명을 받은 정약용 선생은 당시 조선의 모든 과학기술 서적을 파헤쳤습니다. 이후 사람의 힘을 덜 들이고 성을 쌓을 수 없는지 고민하다가 도르래 원리를 이용한 거중기를 발명했죠. 거중기를 사용하자 10년이 걸렸던 성곽 축조가 단 2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의 발명이 국민들의 수고와 조선의 국고를 절약하도록 도운거죠.”

대한민국 꿈나무들의 상상이 한 데 모인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개최된 지난 24일,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약용 선생의 창의력과 성품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이를 통해 그는 청소년들이 지식과 지혜뿐 아니라 근면 성실한 모습까지 갖춘 미래

인재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특허청과 조선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주관하는 ‘제27회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에는 총 8천 건이 넘는 발명품이 출품됐다. 이 중에서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상작으로 선정된 170여 점의 발명품은 생활 속 간지러운 부분을 쓱쓱 긁어주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무장하고 있었다.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과 학교의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출품작 수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참여하는 학교 역시 올해 1,108개 교로 증가해 국내 청소년들의 발명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고스란히 보여줬다.

출품된 발명품은 그야말로 상상력과 재미있는 발상으로 톡톡 뭉쳐 있었다. 일어설 수 있도록 고안된 앉은뱅이 의자와 사용자가 설정한 아이콘을 드래그해 명령을 실행하는 우클릭 인터페이스, 맞물림 기어를 이용한 양면 칠판지우개 등 학생들은 실생활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소재를 통해 전혀 새로운 용도의 제품을 만들었다.

김광림 회장은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자신은 한 번도 일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를 즐기는 일의 연속이었다는 의미”라며 “발명은 즐기는 가운데 도출되는 기발한 발상인 셈”이라며 학생들의 빛나는 창의력에 격려를 더했다.

“연구하고 발명하는 학자가 되고 싶어요” • 이날 전시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발명품은 국무총리 상을 수상한 장주연(인천 과학고, 3년) 학생과 박나영(미래산업과학고, 3년) 학생,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상을 수상한 김연수(인천 안남중, 3년) 학생, 그리고 조선일보사장상을 받은 우성욱(대구과학고, 2년) 학생의 출품작이었다.

장주연 학생은 불순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탈부착형 배수구 팝업을 발명했다. 평소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는 것을 보며 배수구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싶었다는 장주연 학생은 “원터치 팝업이 수동팝업보다 편리하긴 했지만 배수구 부품 자체가 관 내부에 들어있어 물이 내려가는 속도도 느리고 이물질이 더 잘 쌓이더라”며 “팝업의 배수부에 거름망을 설치하고 자석을 이용해 탈부착이 가능한 팝업을 만들면 교체도 편리하고 사용도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연구동기를 밝혔다.

장주연 학생의 발명품은 경제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거름망만 떼어내 세척하면 되므로 팝업을 교체하는데 드는 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팝업을 분리해 주기적으로 세척할 경우 이물질 제거뿐 아니라 배수속도가 느려지는 염려도 덜 수 있다는 평가였다.

박나영 학생은 너비조절이 가능한 노인용 보행보조기를 발명해 주목을 받았다.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를 한다는 박나영 학생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주로 보행기에 의지해 걸으시는데 의자와 의자 사이 혹은 의자와 책상 사이 등 보조기보다 좁은 곳을 지나갈 때 불편해 하시는 것을 봤다. 그 사이를 지나갈 때는 꼭 한 손으로 의자나 책상을 짚으신다. 하지만 팔과 다리에 힘이 없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의 모습은 매우 불안정하다. 그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보행기라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박나영 학생의 발명품은 접이식으로 된 기존 보행기와 달리 스프링을 이용해 빠른 시간 안에 부피를 줄일 수 있다. 더군다나 기존 보행기와 사용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연수 학생은 화장실 슬리퍼를 편리하게 정리해주는 회전 정리판을 개발했고 우성욱 학생은 건거나 서있을 때, 혹은 앉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바른 자세 벨트를 만들어 재치 있으면서도 진지함이 돋보이는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발명은 인류에 대한 휴머니즘 •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석준 특허청 차장은 전시회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전에 대한 꿈을 꾸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만이 미래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다”며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상상하고 도전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사를 건넸다.

“발명은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모든 발명에는 인간애가 깔려 있다는 의미죠. 학생들의 발명품은 집에 계시는 어머니, 혹은 병원에 계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등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존재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발명을 진행하며 인류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날은 발명전시회와 더불어 창의력챔피언대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팀이 참여하는



03



04

창의력 챔피언 대회는 서로의 창의력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보다 넓은 상상과 창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한국영재교육학회와 한국직업교육학회 등 6개 학회가 참가해 '새로운 세상으로의 비상, 희망의 창의발명교육'이라는 주제로 향후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발명전시와 창의력 페스티벌, 학술대회와 더불어 행사장 곳곳에는 여러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로봇과 무빙라이더를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체험관, 사이언스 체험관, 빛 터널, 트리아트 등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호기심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보다 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지현 학부모는 "학생들의 다양한 발명품을 보면서 참으로 기특하고 뿌듯하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 꿈나무들이 자신의 상상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커가고 있는 자녀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많은 긍정적인 생각을 얻고 갈 수 있던 자리였다"며 페스티벌 관람 소감을 밝혔다. **발명특이**



03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상을 수상한 학생들과 이준석 특허청 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4** 김광림 한국발명진흥회장이 학생들에게 시상하고 있다. **05**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장주연(인천과학고 3년) 학생이 본인의 발명품인 탈부착형 배수구 팝업을 설명하고 있다. **06** 2014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 참가한 청소년 대표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01



02



03



04

지식재산 시대, 그 변화의 중심에서다

▶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신화의 신념
'몰입' ②

KIPA 중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 & 40년사 발간기념식
 '지식'의 힘은 막강하다. 창조된 지식은 재산이 되고 경제를 만든다. 그리고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
 지난 6월 30일,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국발명진
 흥회의 「중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가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더불어 1973년도에 창립된 한국발명진흥회의 지난 40여 년간의 발자취가 담긴
 「40년사 발간식」도 함께 마련돼 그 의미를 더했다.

모두가 함께할 때 폭발하는 시너지 • ‘도전과 창의·고객·전문성·투명성’을 핵심가치로 여기고 있는 한국발명진흥회 중기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가 오전 11시 19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경영선진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함께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앞서 나아가야함을 상기시키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가장 먼저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과 3대 전략목표에 따른 11개 전략과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영부문에서는 ‘고객과의 동반성장 문화구현’을 목표로 부채감축, 방만경영 Zero,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운영이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사업지원부문에서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 증진’을 목표로 지식재산권 활용 및 시장활성화,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지원, 지역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발명 아이디어 보상 문화 확산을 전략과제로 발표했다. 인재개발부문에서는 ‘최고수준의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식재산기반 창의인재 육성, 발명영재 양성, 지식재산 평생교육 지원, 융합형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전략과제로 내세웠다. 이어 본부대표 3인이 무대로 나와 “국민중심 서비스 증진을 통한 고객만족도 최우수 등급 달성, 창조경제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IP 활용 지원률 25% 달성, 그리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적 IP인력 400만 명을 양성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낭독했다.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자리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영전략을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더욱 발전해야 한다. 앞으로도 함께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부딪치고 성장해나가길 바란다”며 다짐의 말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캐치프레이즈 제막식을 통해 ‘아이디어로부터 꿈을 실현하는 2018 지식재산 창조기관’을 발표하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지식재산과 함께 해온 지난 40년 • 결의대회가 끝난 뒤, 한국발명진흥회의 발자취를 기록한 40년사 발간기념식이 열렸다. 임직원, 역대 임원, 40년사 제작업체인 ㈜사사연 관계자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먼저 40년사 편찬을 담당한 기획팀 박선민 주임은 편찬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회는 지난해 40주년을 맞아 기관경영의 지침서 및 직원의 교육·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임직원의 자긍심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40년사 작업에 착수했다”며, “40년사를 준비하면서 우리회가 얼마나 대단한 기관인지를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약 1년간의 제작일정으로 진행된 40년사는 발간사 및 축사를 시작으로 40주년 기념화보, 연혁화보, 통사, 한국발명진흥회 사람들,

사업부문사, 역대회장 및 상근부회장, 발명장려제도시, 전·현직 임직원 명단과 사옥이전 등의 내용을 담은 부록이 담겨있다. 책은 총 1,500부가 발간됐으며,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어 40년사 화보 슬라이드쇼가 상영됐다.

조은영 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회가 작은 모퉁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발명’을 위해 애써온 선배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임직원 여러분들도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IP시대를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힘차게 전진하자”고 전했다.

또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발명진흥회의 발전과 40년사 발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 대한 공로패와 감사패 증정식이 이어졌다.

발명동우회 공로패는 40년사 편찬에 많은 노력을 기여한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과 기획팀 박선민 주임이, 한국발명진흥회 감사패에는 이집중 40년사 전문위원(전 이사)과 ㈜사사연에게 수여됐다. 사옥마련 공로패는 이태섭 초대 부회장, 김흥두, 최선배 전 부회장에, 사료 제공자인 이민우, 김동환 과장에게는 상품권이 전달됐다.

이태섭 초대 부회장은 “40년사 발간을 축하드리며, 애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 드린다”며 “앞으로도 한국발명진흥회의 발전을 위해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나갔으면 한다.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대한민국 IP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전·현직 임원이 모두 참여해 떡케익 절단식을 갖고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발명특허



01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3대 전략목표에 따른 11개 전략과제를 나누는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02** KIPA 중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결의대회에서 다짐의 말을 전하고 있는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03** (왼쪽부터)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 이집중 40년사 전문위원, 김흥두 전 부회장, 최선배 전 부회장,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이태섭 초대 부회장, 정우영 경영기획본부장, 어용호 인재개발연구본부장이 떡케익 절단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4** 이태섭 발명동우회장(초대 부회장)이 조은영 부회장에 40년사 편찬 공로패를 전달했다.

미래의 우리와 만나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신화의 신념
'몰입' ②

2014 원로발명인 간담회 개최

발명에는 비법이 따로 없다. 꼭 해내고 만다는 자신감과 끈질긴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지난 7월 8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한평생을 끊임없이 노력해온 원로발명인들을 만났다. 그들에게 물었다. 아직도 발명할 것이 더 남았느냐고, 그들은 말한다. “물론이죠! 세상은 여전히 넓고 궁금한 것 투성이니까요. 실패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경험으로 삼으세요. 그 노력은 우연한 기회에 아주 멋지게 인정받을 겁니다.”



발명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해 •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7월 8일 오전 11시, 발명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 원로발명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2014 원로발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로발명인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발명진흥회의 발명계 선도적 역할 수행 및 상호 교류 협조체제 구축, 향후 발명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장소로 속속 도착한 원로발명인들을 한국발명진흥회 임직원들이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넘쳤다.

개회선언 후,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원로발명인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린다. 작년보다 올해 더 젊어지신 것 같다. '발명'이 원로발명인분들에게는 큰 활력소가 되는 것 같다.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대화도 많이 나누고 발명에 대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며 인사말씀을 전했다.

이어 한국방송코미디협회장인 개그맨 엄용수 씨의 웃음과 건강에 대한 특강이 열렸다. 성대모사 등 특유의 재치와 유머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 그는 "잘 웃으면 긍정의 마음이 생기고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돼 건강이란 선물을 준다. 희망과 웃음이 기적을 불러오니 항상 희망을 잃지 말라"며 40분 동안 열강을 진행했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조은영 부회장과 원로발명인들 중 가장 큰 어른인 변경삼 님(100세)의 건배제의로 식사를 시작했다.

경쟁이 아닌 소통이 필요한 시대 •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원로발명인들의 근황과 발명가로서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숙취해소용 천연차인 '여명 808'을 생산하고 있는 남종현 (주)그래미 회장은 "발명가들은 대체로 개개인이 혼자 고민하고 발명품을 만들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이제는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도움도 주고 조언도 해주면서 더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켜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동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천연암반수를 최신공법으로 빚어낸 강화 막걸리를 개발, 전통주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진순 (주)찬우물 회장은 "벗이자 지원군인 우리 원로발명인들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 이 자리를 만들어준 한국발명진흥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발명진흥회 40년사 발간의견 청취와 원로발명인과 친화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일생을 바친 원인호 한국발명원

회장은 "원로발명인이 생긴지 벌써 10년이 됐다. 한국발명진흥회가 40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하면서 정책적으로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제안해준 덕분이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발명정책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에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어머니발명협회를 창립한 하상남 초대회장도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나이가 무색하게 사업가, 발명가, 여성운동가 등으로 맹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생활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창의력과 발명마인드 교육을 통한 국민의식을 높이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자유 논의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으로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발명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창조정신이 지금의 원로발명인들을 있게 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명의 역사와 그들의 탐구정신, 보이지 않는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발명특어**

01 원로발명인과 한국발명진흥회 임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2 조은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이 "건강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길 바란다"며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02

빠질 곳을 알고 빠지는 것, 그것이 진짜 몰입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자기신화의 신념
'몰입' ③

국내 최초의 스타 PD에서 강단으로... 주철환 PD

아마도, 그에게는 무리 없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야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의 스타 PD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지만 20~30년 전의 상황은 지금과 달랐다. 돌릴 수 있는 TV 채널도, 접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한정적이었던 당시 유독 돋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몰입'하게 만든 사람이 있었다. <우정의 무대> <일요일 일요일 밤에> <대학가요제> 등을 만든 주철환 PD가 바로 그다. '몰입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도 결코 만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는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는 자신만의 몰입 노하우를 이야기했다.

젊은 학생들과의 교감이란 • 나긋나긋한 목소리, 싱긋 보이는 눈웃음. 국내 방송 역사에 오랫동안 회자될 굵직한 프로그램을 남긴 주철환 PD는 예상외(?)로 친절한 사람이었다. 마치 '재미있고 즐겁게 살고 싶다'는 그의 인생철학이 몸 전체에 베어든 듯, 그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산뜻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다.

현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는 "젊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일은 늘 즐겁다"며 "예쁜 꽃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는 것 마냥, 학교에 있으면 나까지 젊어지는 느낌"이라며 최근의 근황을 전했다.

고등학교 교사로 3년, 방송 PD로 17년, 방송계에 입문한 그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전해졌을 때 의외의(?) 경력에 사람들은 질문을 이어나갔다.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나간 고등학교 교사가 어떤 연유로 험하다 험한 방송계에 몸을 담게 됐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더불어 어떻게 방송사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느냐는 질문까지. 사실 이에 대한 그의 대답은 조금은 맥 빠진다. 마치 잘 나가는 연예인이 '친구 따라 오디션 봤다가 나만 합격했다'는 후기를 늘어놓듯, 그의 답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그저 장난삼아(?) 본 방송사 PD 시험에서 그는 가볍게 합격통지서를 받았을 뿐이다.

하지만 이 '가벼운' 합격통지서 뒤에는 많은 준비를 갖춰놓은 그의

실력이 있었다. 학창시절부터 책과 음악에 빠져든 그에게 다양한 분야를 묻는 상식시험은 유리했고 국어교사로 교단에 섰던 만큼 국어 과목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

언어가 포괄하는 범위가 말 이상의 문화와 환경까지라는 점에서 우리말에 강한 그의 강점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흥행으로 이어졌다. 요리조리, 앞과 뒤를 바꾸며 말의 재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는 마치 한 가지 재미있는 놀이에 깊이 빠져든 아이처럼 이야기를 이어나갔고 그 콘텐츠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바로 몰입이었다.



01 1990년대 방송가를 휘어 잡았던 콘텐츠를 연출·기획했던 주철환 PD는 현재 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활약하며 문화콘텐츠 부흥에 힘쓰고 있다.





02

몰입에 앞서 필요한, 주관과 소신

“몰입은 결국 내가 어디에 빠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빠진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물에 풍덩 빠지기도 하고 물에서 스윙 빠지기도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사랑만 쏙 빠져있기도 합니다. 즉, 빠질 곳을 잘 찾아야 한다는 거겠죠. 무조건 빠지는 게 다 몰입은 아니라는 거예요. 몰입과 중독은 다르잖아요. 몰입은 내가 주체가 되지만 중독은 내가 아닌 그 대상이 나를 이끄는 거죠.”

주관과 소신. 그는 몰입을 이야기하며 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어딘가에 집중하기 전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것이 ‘주관과 소신’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골프 혹은 피겨스케이팅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내 자녀도 그런 스포츠 종목을 시켜야 한다는 부모들의 생각, 그건 몰입이 아니에요. 아이를 ‘빠뜨리는’ 거죠. 아이가 주체가 되는 몰입이 아니라 부모가 주체가 되는 강압이에요. 몰입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시대는 사람들에게 몰입을 강조한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몰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걸까. 이에 대해 주철환 PD는 “나의 경우 몰입을 통해 실력자가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국어



03

교사로서 운동주의 시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운동주에 몰입해 그가 살아온 삶을 연구하고 체득하면 누구보다 그를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력자가 되는 거죠. 몰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실력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몰입을 어려워한다. 특히 볼거리가 다양한 지금의 세대에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욱 어려운 일이 됐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무언가에 빠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그의 조언이 듣고 싶었다.

“어떻게 보면 몰입이라는 단어에 너무 ‘몰입’ 하는 것도 강박이에요. 사실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잖아요. 저는 누군가가 몰입이 어렵다고 하면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말해요. 왜 모두가 몰입해야 하나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들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일에 몰두하죠. 혹은 맛 집을 찾아다니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해요. 물론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때와 시기에 맞춰 몰입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지만요.”

창의력, 그리고 세종대왕

• 주철환 PD는 현재 많은 강연으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방송계를 떠난 그에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가 살아온 인생부터 그의 머릿속을 꽉 채운 이슈,



- 02** 주철환 PD는 대학생은 물론 기업인, 주부 등 누구나와 소통하길 즐긴다. 강연 주제도 상상력에서부터 리더십, 행복 등 청중들의 갖가지 관심사를 두루 망라한다.
- 03** 주철환 PD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더 좋은 날들은 지금부터다', '청춘' 등 20여 권의 책을 발간했다.



그리고 그를 지금에 이르게한 가치관까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해 많은 이야기를 건네는 그는 현재 창의력 강의로 대중과 만나고 있다. 주철환 PD는 여러 번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창의력 원천을 '결핍과 궁핍'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는 여섯 살 때 어머니의 죽음을 경험했다. 어린나이에 어머니와 이별하는 아픔은 매우 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는 "아마 아버지와 나는 대화가 한 시간도 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의 경험은 아픔이 아닌 새로운 '능력'으로 그에게 남았다.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그는 외로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일기와 편지쓰기를 일삼았고 자연스럽게 유려한 글 솜씨를 얻을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궁핍과 결핍이 그의 창의력의 근원이 된 것이다.

결국 누구나 인생의 고독한 시기를 거치지만 그 시간의 의미를 거꾸로 받아들이면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는 세종대왕을 언급했다.

"그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이 됐는가 중요합니다. 바로 발상을 뒤집었기 때문이에요. 스티브 잡스,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고정관념을 뒤바꿨어요. 에디슨은 양초 공장의 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구를 만들었죠. 스티브 잡스 역시 전기 공장의 사장이 될 수 있었지만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폰을 개발했어요.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발명하지 않고 한자교육을 강화할 수 있었지만 그는 모든 국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발상의 전환인거죠."

학생들 머리에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그는 머리 밖으로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엉뚱한 발상을 타박하기보다 오히려 칭찬하는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었다.

"저도 나름대로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평가 받아요. 그렇게 될 수 있던 데는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에게서는 물론이거니와 학교에서도 '괜찮다' '잘한다'며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말들은 제게 자신감을 키워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죠."

그는 요새 일요일 아침마다 서재에 앉아 글을 쓴다고 했다. 신문에 기고하는 칼럼을 위해서다. 지금의 나날이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더불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나를 찾아오는 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일에 유쾌함과 즐거움으로 임하는 그를 보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시기와 날씨와 관계없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봄날로 만드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발명특이**



IP FOCUS 01

중국의 특허괴물 대처법



지난 7월 6일 중국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에 올라온 신형 휴대폰 모델이 화제가 됐다. 글로벌 휴대폰 업체 모두에게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인만큼 신형 휴대폰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겠나 하지만 중국 로컬 휴대폰 업체는 물론 삼성전자, 애플 등에게도 반갑지 않은 신제품의 등장이었다.

노키아와 MS의 동맹과 특허전쟁

• 주인공은 노키아의 원도폰 후속모델인 루미아 830. 이 제품은 노키아의 원도폰 820의 후속모델로 아직 시장에는 나오지 않은 모델이다. 슬쩍 소셜네트워크 등에 모델의 일부 모습을 공개해 시장의 반응을 떠보려는 마케팅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 모델이 중국 휴대폰 업체들을 긴장시켰던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한 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는 중저가 원도폰이기 때문이다. 당연하다는 듯이 유출된 사진 속 제품 뒷면에는 'MS에 의해 만들어진 노키아(NOKIA by Microsoft)'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MS의 노키아 인수효과가 가시화될 1~2년 후가 더 걱정이다. MS가 원도폰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와 저가정책으로 시장을 공략할 경우 안드로이드 진영의 저가 중국 휴대폰 업체들의 경쟁력은 추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올해 초 중국 MS의 노키아 인수 합병에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월 중국 IT전문지 웨이보에 올라온 만화는 중국 IT업계의 속사정을 그대로 보여줬다. 만화는 중국의 전통적인 괴물인 사흉(도철·혼돈·궁기·도올)을 무섭게 생긴 늑은 거인이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무기력하게 깔려 있는 사흉은 화웨이·샤오미·레노버·오포 등 중국 휴대폰 업체이고 늑은 거인은 노키아를 의미한다. 재미있는 건 늑은 거인인 노키아 옆에 챙이 높은 모자를 쓴 사람(MS)이 귓속 말을 한다. “(특허는)더 비싸게 팔아야지”

한 컷짜리 만화가 나타내는 상황은 이렇다. 지난해 9월 MS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하며 이동통신 관련 무수히 많은 특허를 보유한 노키아에 넘겼다. 노키아가 특허를 무기로 스칸디나비아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괴물 트롤(Troll)이 돼 사흉(휴대폰업체)을 지배하는 구도가 된 셈이다. 그리고 노키아의 사업을 인수한 MS는 원도폰 점유율 확대를 위해 노키아의 특허권 남용을 부추길 것이란 예상이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MS와 노키아의 합병에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앞서도 말했듯 휴대폰 사업이 없는 노키아가 보유한 특허로 이익을 취하는 특허괴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을 인수한 MS가 현재 점유율 3.7%에 불과한 원도폰의 점유율을 15%로 높이기 위해 안드로이드폰 시스템에 보유하고 있는 수만건의 특허 사용료를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격경쟁력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휴대폰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우려를 가장 깊게 고민한 건 중국 휴대폰 업체



NOKIA



보다는 중국 경쟁당국이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이 MS가 던지는 조그마한 혜택에도 조변석개(朝變夕改)했다면 기업 결합의 심사를 담당하는 중국 상무부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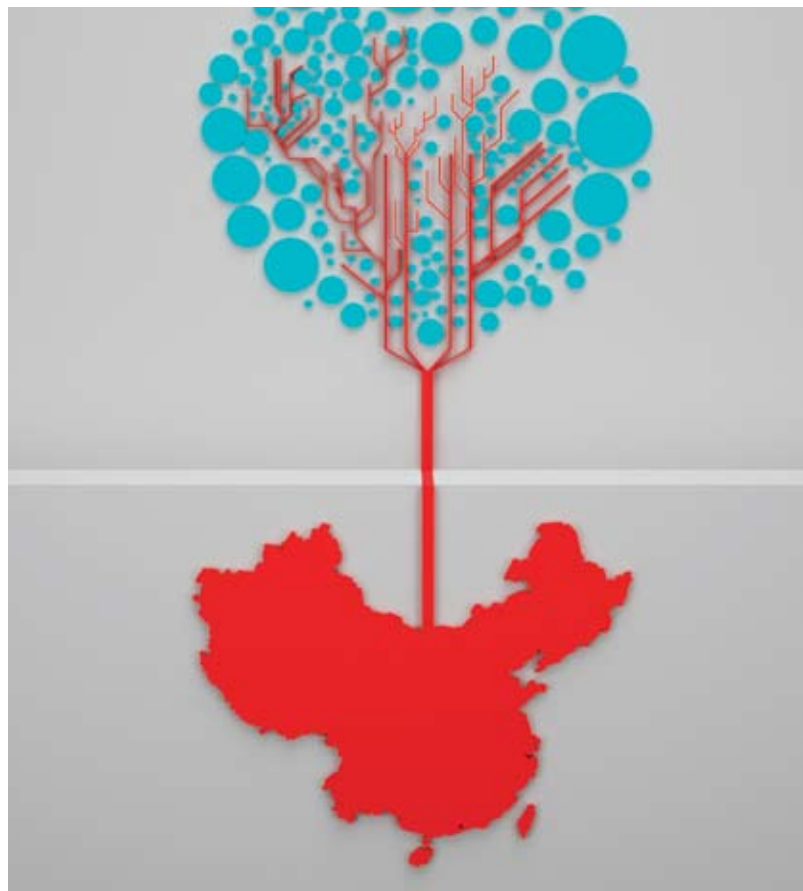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MS의 노키아 휴대폰 사업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당시 상임주 상무부 반독점국장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서 노키아가 보유한 모바일 표준특허(SEP)의 특허 남용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며 “결론적으로 MS가 노키아의 휴대폰사업을 인수하는 것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표준특허에 프랜드(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원칙을 준수하고 중국 내에서 제조하는 스마트폰 제조업체에게 판매금지령, 배제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허료에 대해서는 시장조건과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우대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해 중국 내 휴대폰 업체의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력을 높였다. 또 비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3자에게 양도하지 않으며 양도 이후에도 특허 사용에 대한 조건이 유지된다고 분명히 했다. 휴대폰 사업을 매각한 후 관련 특허만 보유한 노키아에 대해서도 표준특허는 프랜드 원칙을 적용하고 비표준특허는 악의적 특허 사용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표준특허와 비표준특허의 기워팔기는 금지했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선위적·악의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독립된 재심기구가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과도한 특허사용료의 인하를 내심 기대했던 휴대폰 업체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이다. 중국 휴대폰 업체들은 2017년까지 MS에 38억 달러 이상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특허괴물을 다루는 중국 경쟁당국의 모습은 한국과 사뭇 다르다. 중국은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심사를 상무부에서 주관하지만 국가발전개혁위원회·공업정보화부 등 여러 부처의 의견을 취합해 의사를 결정한다. 쉽게 말해 경쟁법적인 상황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산업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한다. 기업결합심사 일정에도 중국이 한국보다 좀 더 신중하다. 1단계 30일, 2단계 90일에 공청회 등을 거친 후 60일을 재연장할 수 있다. 한국은 1차 30일, 2차 90일로 2단계로 나뉘져 있다. 그나마 자료 준비기일을 심사기일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시간을 끌긴 하지만 공청회 등 외부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없다. 위원회 조직으로 의견을 취합하긴 하지만 경쟁법적인 상황만 고려할 뿐이다. 여기서 대기업에 대한 지독한 편견도 산업적인 측면을 배제한다. 중국 상무부는 MS의 휴대폰 관련 특허를 전부 공개하며 MS의 추가적인 특허 남용을 막으려는 노력을 보였다. 공개된 특허는 모두 310 개다. 내역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표준 필수 특허가 73건이며 안드로이드OS에 구현한 특허가 127건, 출원 혹은 인수합병 등으로 획득한 비표준 필수 특허는 100건이다. 이 가운데 지정 지역 검색이나 무선 네트워크 사용자의 위치 검색과 추적 같은 특허는 지금까지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것이다.

표준 필수특허 73건과 안드로이드OS에 구현한 특허 127건 중 일부는 MS가 애플, 소니, 블랙베리와 함께 지난 2009년 파산한 통신회사 노텔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특허를 45억 달러에 구입하기 위해 설립한 합작기업인 록스타컨소시엄(Rockstar Consortium)에 속한 것



이다. 노텔 관련 특허는 인수 후 일부는 록스타컨소시엄에 귀속됐고 기타 특허권은 MS와 애플, 소니, 블랙베리의 손에 넘어갔다. 록스타컨소시엄이 지난해 10월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가봐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중국 상무부의 특허 공개에 MS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쟁당국에 찍히지 않겠다는 전략과 몇 년 뒤면 충분히 특허권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구상이 있기 때문이다.

특허괴물 예의 주시해야 • 우리나라의 경쟁당국은 현재 3.7%의 휴대폰 점유율을 가진 MS가 들어온다고 무슨 일이 발생하겠냐는 도식적인 발상을 내놓았다. 불과 몇 년 뒤 MS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특허남용이 발생할 때 어떤 식으로 다시 대처해나갈지 의문이다. 물론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특허를 보유해 소송을 하는 업체들이 산업전반에 무조건 해를 끼친다고만 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의 특허를 구매해 대기업의 특허침해를 대신 방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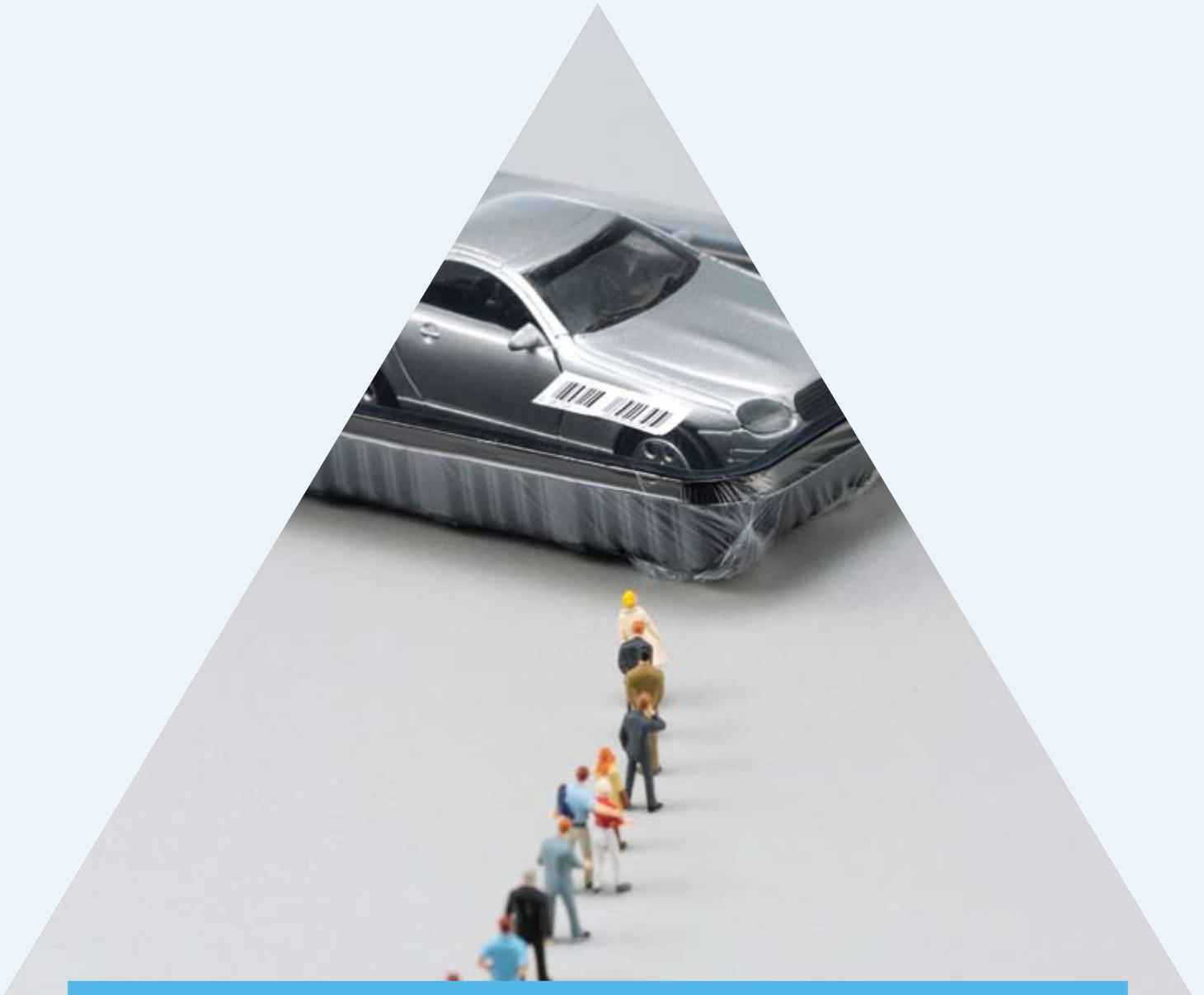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MS와 노키아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특허 괴물은 공정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거대 다국적 기업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각국의 경쟁당국이 모여 논의를 하고 합의점을 찾는다고 한다. 과거 2000년대 초반 GE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미국은 승인한 반면 EU가 불허하며 파장을 일으켰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대기업이 일부 제품에 대해 국내에서 독과점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지만 특허에 대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휴대폰의 경우 지금도 노키아에 판매가의 2%, MS에는 휴대폰 1대당 5달러, 패드 1대당 10달러의 특허료를 내고 있다.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후 노키아의 한국 공장은 폐쇄됐다. 냉혹한 경영논리에 따라 한때 2,000여명에 달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공장 폐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산업부의 예측은 빗나갔고 아무 대비책도 세우지 못한 채 공장문을 닫았다. 이후 들려오는 실적 가장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소식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은 이미 지난 4월 우리

나라에서도 승인을 받았다. 우리 공정위가 충분히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싶다. 미국은 MS를, EU는 노키아의 편을 든다면 우리는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졌기를 바란다. **발명특허**





IP FOCUS 02

다가오는 로봇카 시대와 특허괴물



로봇카란 자율주행이 가능한 스마트카를 의미한다. 로봇카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보면, “An autonomous car, also known as a driverless car, self-driving car, or robot car”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또 다른 이름으로 이미 불리고 있다.

로봇카란 무엇인가 • 자율주행 자동차란, 최근 자동차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로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안정적인 주행환경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변상황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친화형 자동차 시스템에 로봇기술이 접목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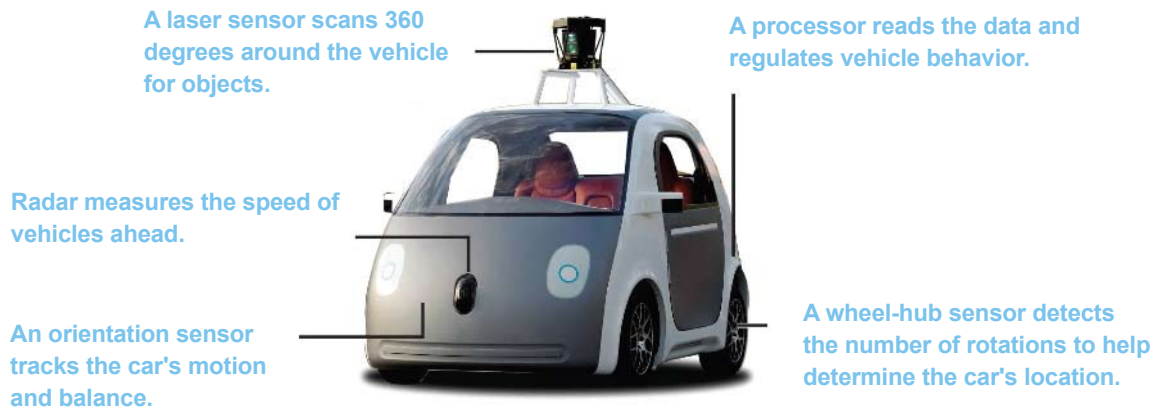
자동차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어 스마트카로 불리는 것이지만, 결국 미래에는 로봇카인 셈이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근 자율주행자동차인 로봇카에 대한 새로운 법규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첨단 자동차 기술의 시연장인 캘리포니아 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세계 국가의 참고가 될 것이므로 완성차 업체는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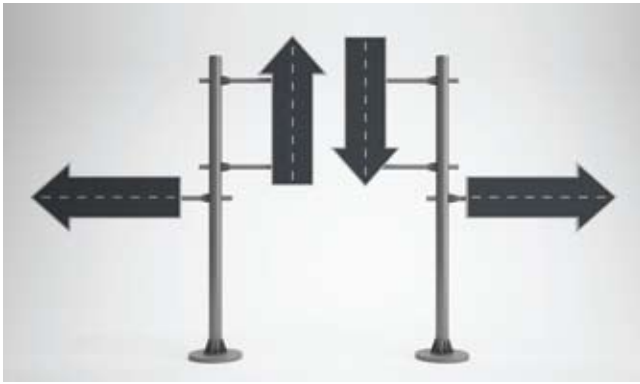
한편으로는 관련 법규를 제정할 정도로 로봇카 기술이 성숙되어가고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봇카 특허동향 • 특허검색을 해보면 로봇카에 관련된 특허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당시 특허와 지금 출원되고 있는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 로봇카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에 대한 수준별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로봇카의 자율주행을 수준에 따라 5개의 Level로 분류한다. Level 0은 현재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 특별히 자동화되지 않은 수준이며, Level 1과 Level 2는 자동화된 자율지행 기술이 지원되는 개수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차간거리 유지기능과 정속주행

Source : Google



Level 0	The human driver is in complete control of all functions of the car
Level 1	One function is automated
Level 2	More than one function is automated at the same time, but the driver remains attentive
Level 3	Driving functions are sufficiently automated-the driver can safely engage in other activities
Level 4	The car is self-driving-no human driver required



기능 중 어느 1개만 있으면 Level 1이고 모두 있으면 Level 2이다. Level 3부터 자동차가 주행을 리드하는 본격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한시적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구글카가 바로 Level 3이다.

Level 4는 운전자 없이도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궁극적인 로봇카이다. 대부분 완성차 업체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Level 1, 2의 특허를 확보해왔고, 지금은 Level 3, 4 수준의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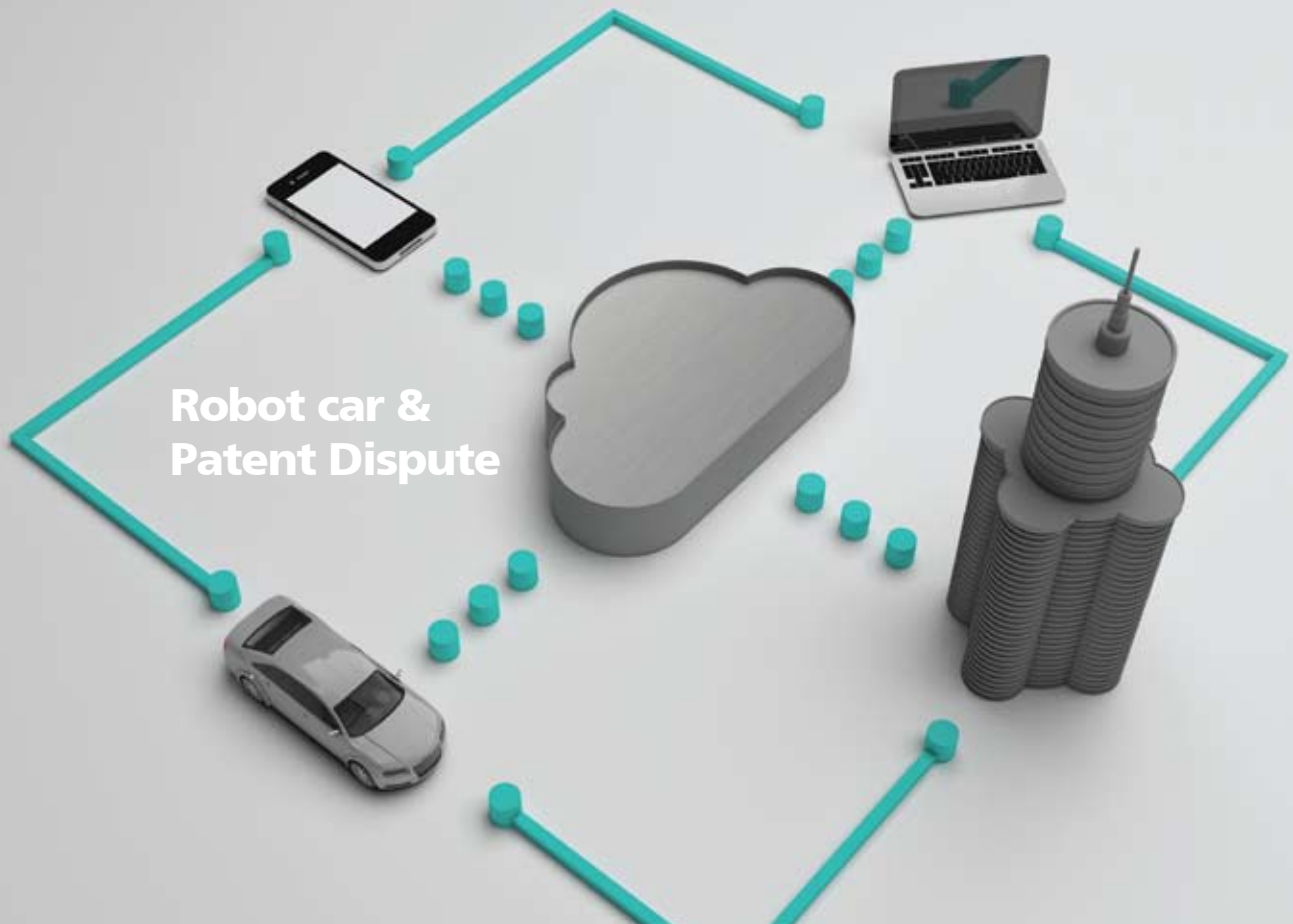
로봇카의 각축장인 미국특허에 대한 각 국가별 특허점유율은 미국(52%), 일본(29%), 독일(7%)의 순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중 4%에 불과해 완성차 생산대수를 기준으로 한 글로벌 입지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구간별 점유율의 변화를 살펴봐도 미국, 일본, 독일은 최근까지 꾸준히 일정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간이나마 증가추세이다.

2000년 이후의 출원은 Level 1, 2에서 Level 3, 4의 특허로 변화하는 시기일 것이다. 로봇카 기술이 단순히 차량탐재 기능뿐 아니라

도로교통시스템과의 연계기술까지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낮은 점유율은 더욱 이해가 간다. 다행히도 고속주행도 가능한 ITS기반의 지능형 자동차부품시험장이 올해 준공되고, 미래형 고속도로 연구사업이 추진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예정되고 있어 빠른 시간 안에 Level 3, 4 수준의 특허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로봇카와 특허분쟁 가능성 대두 • 현실화되고 있는 첨단기술은 기업 간 기술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며 기술경쟁의 최대 화두는 특허분쟁이다.

자동차 분야의 특허분쟁은 자동차 안전·편의기술로 더욱 확장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자동차의 상태와 주변상황을 인식하는 센서와 도로상태 및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인프라와의 융합을 통해 자동차를 능동적으로 제어함으로써 안전도를 높이고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있으며, 각종 스마트 디바이스와 통신 인프라가 연계되어 운행에 필요한 정보나 일상생활 정보를 자동차 내외로 쉽게 통신해



차량 편의 기능이 높아지면서 이미 자동차는 기계중심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차량의 편의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American Vehicular Sciences는 2012년 1월 텍사스 주법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로서, 모기업은 특허괴물로 유명한 Acacia이며 자동차 부품업체로 특허소송을 많이 제기하던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의 특허를 양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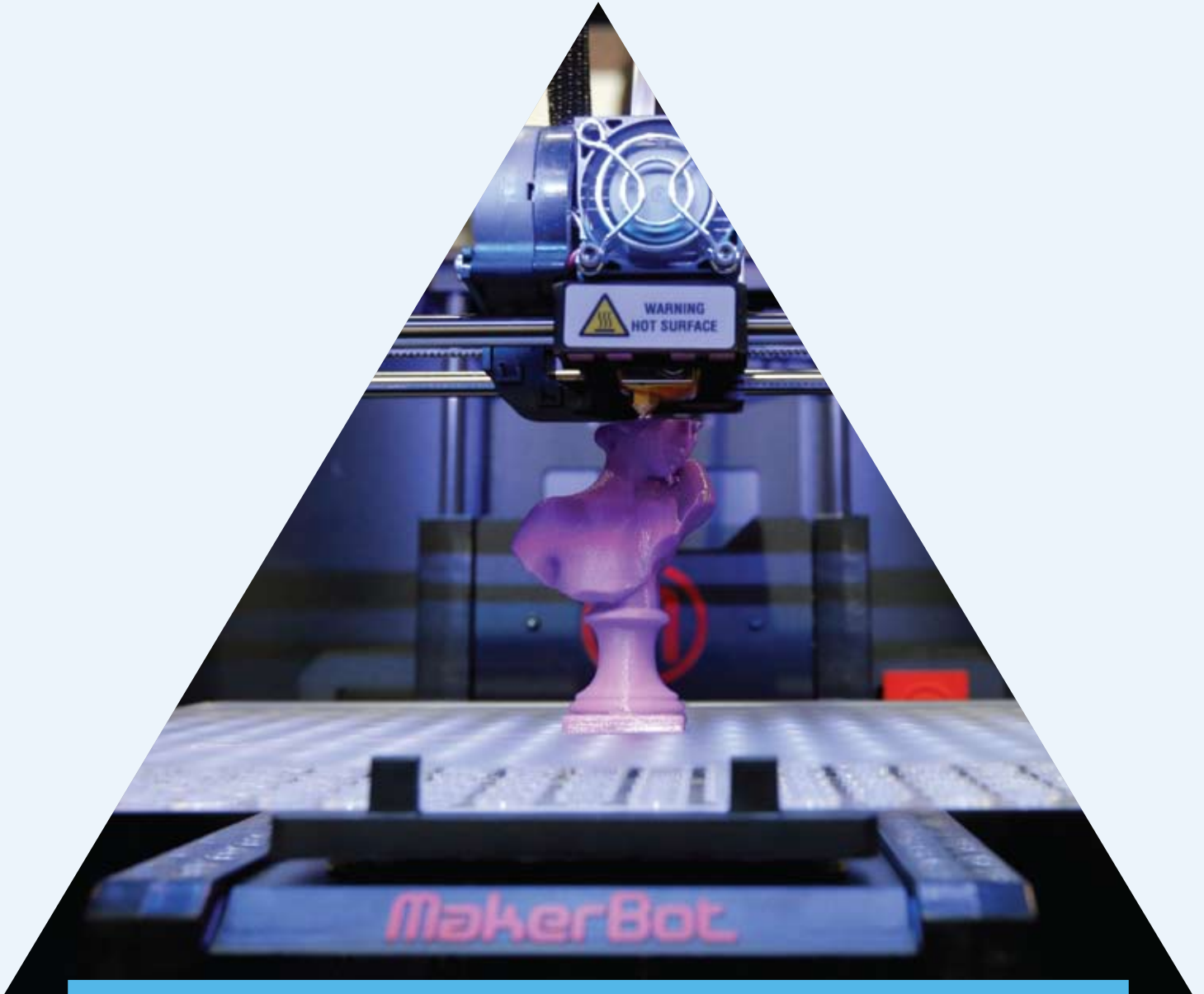
American Vehicular Sciences는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설립되어 2012년부터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를 상대로 특허분쟁을 제기했으며, 전신(前身)인 Automotive Technologies International는 과거 10년간 10개정도의 특허소송이 있었으나 American Vehicular Sciences가 특허를 인수한 후 2~3년간 미국에서만 30건이 넘는 특허소송이 발생했다.

2014년에도 American Vehicular Sciences는 일본의 MAZUDA 자동차를 상대로 도로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도로주행 시 차량속도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을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기한 것을

비롯해 외부감지, 모니터링, 원격진단 및 예방, 정보관리 등 실제로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로봇카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분쟁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의 로봇카에 대한 관심과 정부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특허괴물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특허활동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발명특어**



이재복
한양특허법인
변리사



IP FOCUS 03

핵심 특허 기간 만료, 3D 프린터의 대중화 시대 열리나



지난해부터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았던 3D 프린터 산업은 핵심 특허의 잇단 기간 만료로 제품 상용화와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산업용 3D 프린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해 제조업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3D 프린터 시장 성장에 따라 특허 출원 증가 추세 • 전 세계적으로 3D 프린터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3D 프린터가 단순히 3차원 입체물을 제조하는 기계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제품 제조 방식을 바꿀 혁신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시장 성장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3D 프린팅 기술 관련 전문 컨설팅 회사인 홀러서어소시에 이츠에 따르면 2012년 3D 프린터 시장 규모는 22억 400만 달러다. 이는 2011년 대비 약 28.6% 증가한 수치다. 오는 2021년까지 연평균 19.3% 증가해 10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25년간 3D 프린터 산업은 매년 약 25.4%씩 성장해 향후 관련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3D 프린터 관련 특허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만해도 3D 프린터 특허 출원수가 2005년 기준 19건에서 2011년 59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3D 프린터 시장은 초기 단계로 향후 관련 특허 출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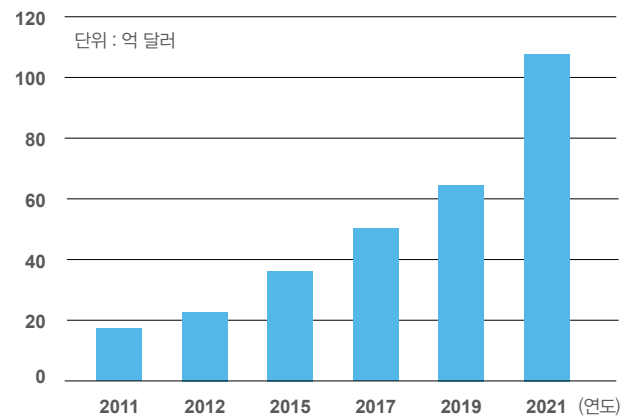
3D 프린터 선도 기업, 시장 선점 위한 치열한 경쟁 중 •

세계 3D 프린터 시장은 스트라타시스(Stratasys)와 3D시스템즈(3D Systems) 두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두 기업의 전체 3D 프린터 시장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이들 선도 기업들은 3D 프린터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스트라타시스는 2011년 3D 프린터 관련 특허를 다량 보유한 솔리드스케이프(Solidscape)와 2012년 이스라엘 오브젝트(Object)를 인수하며 판매 대수 기준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오브젝트 인수를 통해 '압출적층 방식'¹⁾(FDM : Fused De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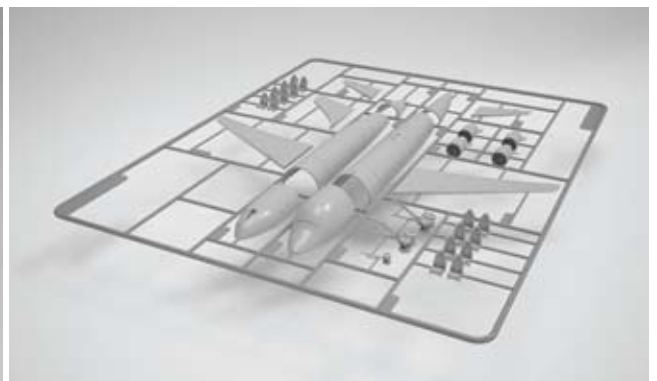


〈세계 3D 프린터 시장 규모 전망〉 자료 : Wohlers Associates Inc.



각주

1)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 얇은 실 형태의 열가소성 물질을 노즐 안에서 녹여 박막 필름 형태로 출력하는 방식임. 저렴한 장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장점임. 이 점이 부각돼 2009년에 주요 핵심 특허가 만료된 이후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 확산에 큰 영향을 끼침



Modeling) 및 '폴리젯 방식(Polyjet)' 기술의 원천 특허를 확보했다. 또 스트라타시스는 개인용 3D 프린터 시장에서 25%를 차지하는 메이커봇(MarketBot)을 인수하며 관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3D시스템즈는 '광경화수지조형 방식²⁾(SLA : Stereo lithographic Apparatus)'과 '선택적 레이저소결조형 방식³⁾(SLS : Selective Laser Sintering)' 기술의 원천 특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1년 이후에만 24건의 M&A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다. 특히 금속 3D 프린터 업체인 프랑스 피닉스시스템(Phenix Systems) 인수가 주목된다. 이를 통해 3D시스템즈는 항공·우주, 자동차 등 금속 3D 프린팅 시장 공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3D 출력 재료 및 장비 관련 다양한 특허를 보유한 Z코퍼레이션(Z corporation)을 인수하면서 제품군이 더욱 다양화됐다. 이를 통해 두 회사의 적극적인 M&A로 시장 점유율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1년 스트라타시스 시장 점유율은 판매대수 기준 38.9%에서 오브젝트와 솔리드스케이프 인수 후인 2012년 53.0%로 증가했다. 3D시스템즈도 2011년 11.0%에서 Z코퍼레이션 인수 후 2012년 점유율이 22.0%로 확대됐다.

3D 프린터 핵심 특허 만료가 시장 활성화의 촉진제 될 것 · 3D 프린터는 1984년 최초로 개발된 이후로 기술 진화에 따라 관련해 많은 특허가 출원됐다. 그리고 선도 기업인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가 보유한 주요 핵심 특허가 잇따라 만료됨에 따라 기업들의 3D 프린터 시장 진입 장벽이 약화됐다. 이는 지난 2009년 스트라타시스가 보유한 FDM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렉랩(RepRap)과 같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FDM은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 소재를 녹여 노즐을 통해 분사, 재료를 층층이 쌓아 물체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특허의 만료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힘입어 저가 3D 프린터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허 만료 이전에는 3D 프린터 가격이 수천 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특허가 만료된 지금 다양한 저가 3D 프린터가 출시돼 개인용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다. 마찬가지로 2014년에 3D시스템즈가 보유한 선택적 SLS의 주요 핵심 특허 만료로 이를 응용한 제품 활성화 및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이에 미국, 독일 등 주요 장비 제조기업 이외에도 후발 주자들의 연구개발과



특허 기술 확보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SLS 방식은 FDM 방식이 단순히 플라스틱 정도에만 활용했던 것과 달리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속 소재가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 항공, 선박, 의료 등 제조업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핵심 특허가 만료됐다는 사실만으로 3D 프린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

• 3D 프린터 핵심 특허 권리 기간이 만료돼도 특허권을 사용할 때 안심해서는 안 된다. 특허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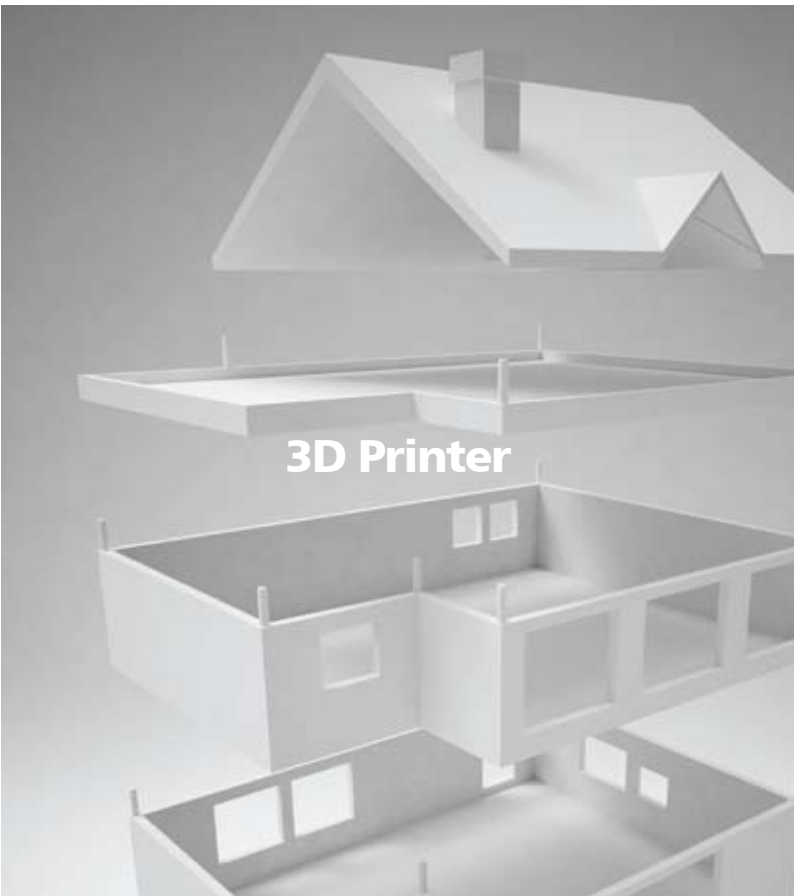
스트라타시스, 3D시스템즈 등 원천 특허를 대량 보유하고 있던 3D 프린터 선도 기업들이 만료 특허와 관련된 개량 특허 등의 권리를 여전히 쥐고 있다.

3D 프린팅 시장은 다양한 부품과 소재, 제품 구성 방식, 시스템 등 타 산업과 다르게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생산, 유통, 판매, 전시, 광고 등 제품 출시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D 프린팅

선도 기업들은 자사의 원천 특허 만료를 예상하고 다양한 주변 특허 및 응용 특허를 확보해왔다. 그리고 시장 선점을 위해 보유 특허를 무기로 소송을 제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3D 프린터 시장을 선도하는 스트라타시스와 3D시스템즈사의 경우 각각 약 180개, 1,200개의 미국과 다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특허들은 많은 기업들로부터 인용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11월에는 3D시스템즈는 3D 프린터 업체인 폼랩스(Formlabs)와 킥스타트(Kickstarter)를 특허침해로 제소한 바 있다.

이와 같이 3D프린터 핵심 특허를 포함해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우수한 기술력으로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들이 3D프린팅 기술 분야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특허가 만료됐다는 사실만으로 무작정 시장에 뛰어드는 것보다 원천 특허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시장 진입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블명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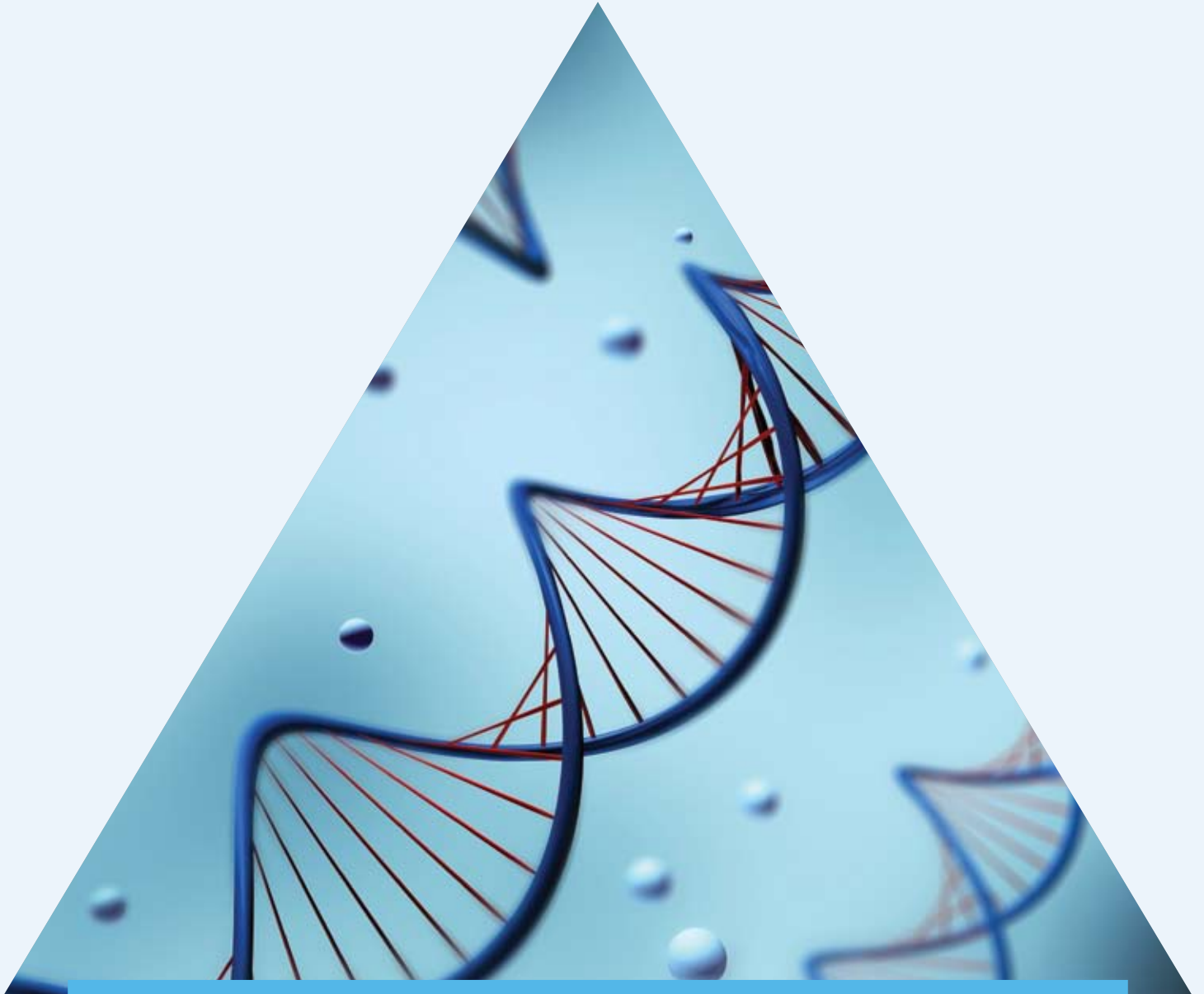


각주

- 2) SLA(Stereo lithographic Apparatus) :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레이저를 쬐 광경화성 수지를 굳히는 기술임. 정확한 조형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나 원료 선택이 제한적이고 주로 사용되는 원료인 경화 폴리머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될 수 있어 내구성 떨어지는 점이 단점임. 산업용 3D 프린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임.
- 3) SLS : Selective Laser Sintering : 파우더에 선택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고 파우더를 도포하는 공정을 반복하는 방식임. SLS 방식은 기존 3D 프린터 방식보다 정확도가 높고 사용 가능한 소재 종류가 많아 금속 재료 산업용 부품 제작에 적합함. 최근 2014년 2월에 만료됨.



정민영
전자신문
연구기자



IP FOCUS 04

인간의 유전자, 특허의 대상인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참여한 1990년대의 휴먼지놈프로젝트를 필두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명공학연구에 엄청나게 큰 재원이 공공이나 민간으로부터 들어갔다. 생명공학으로부터 잠재적인 의료적 이익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공적인 투자의 동기가 되기도 했지만 생명공학산업의 육성이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지식기반경제를 수립하는 데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확신과도 맞물렸다. 그리하여 정부정책이나 규제가 기술이전이나 상업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공공투자도 부추겨진 것이다.

미리어드(Myriad)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유전자 특허 문제

- 국제적으로 특허와 관련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친 이정표는 1980년 미국 대법원 판결이었다. 유전학적으로 변형된 세균에 대해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가 생물학적 유기체의 특허를 불허한다는 취지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았던 결정을 뒤집어 생물학적 유기체와 유전자에 대한 특허의 문을 열어준 계기가 됐다 때문이다. 이러한 미국 특허 정책의 허가 기초와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나 GATT(General Agreement on Trade and Tariffs),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국제적 합의와 타결이 세계 각국의 유전자 특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협정에 동의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은 동식물만이 아니라 인간에서 유래한 유전자에 대해서까지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지만 하면 특허부여가 가능한 물질로 인식하게 됐다.

2002년 미국에서만 1500개 가까이 되는 생명공학회사들의 주된 자원이 질병유전자 관련 특허였을 정도로 유전자 특허가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일자리 창출과 조세 수입에 기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회사들이 도산하거나 파업을 하는가 하면, 거대 생명공학회사나 제약회사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시장과 연구기술의 수렴 현상도 일어나서 생명공학회사들이 특정 연구분야를 중심으로 뭉치거나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아졌다.

유타 주에 본사를 둔 미리어드 역시 그런 생명공학회사 중 하나다. 2013년 5월 유전자 특허에 대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논란이 많았고 특허 부여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방암 위험을 높인다고 알려진 유전자 BRCA1과 BRCA2와 이의 유전자 검사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던 미리어드에 대해 2009년 미국시민자유연대와 공공특허재단에서 특허취하소송을 제기했다.

1991년에 창립된 미리어드는 유타대학교의 암유전역학센터에서 분리된 회사다. 창립자 중에는 70년대 초 유타 주에 거주하는 물문교 신도 20만 가족그룹과 유타에 초기정착민 1만에서 이어진 160만 후손 거의 대부분에 관한 정보를 담은 유타인구데이터베이스(Utah Population Database)를 박사학위 연구의 일부로 개발한 마크 스킨 박사와 1980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월터 길버트 교수도 들어 있다. 가족계보와 의료 관련한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는 유타암등록부와의 연계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했기 때문에 초기에 암과 심장질환 등 발생률이 높은 질병의 유전자를 발견해 상업화하겠다는 목적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이후 이 회사는 유전자 발견 및 상업적 유전자검사를 넘어서 프로테오믹스

(단백체학, proteomics)로 분야를 확대해갔으며 자회사로 미리어드 프로테오믹스를 설립했다. 유전자 표현을 유기체의 단백질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질병과정을 더 잘 이해하고 치료법의 발견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미리어드는 엘라이 릴리나 몬샌토, 노바티스, 로쉐 등과도 전략적 제휴를 추진했다. 1990년대 동안 유전되는 유방암과 난소암의 부분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미리어드가 개발, BRACAnalysis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다.

미리어드는 1996년에 검사 키트 하나를 미국에서 900달러에 시판하다가 비만에 직면했다. 의사집단은 유전상담 지원이 미미해 일반소비자가 검사결과를 오해하고 공공에 해악이 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내에서도 검사에 의해 소비자가 해를 입게 되면 회사가 책임을 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비판과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일어나자 제품을 급히 회수하는 사태도 일어났다. 이후 온라인과 인쇄물로 교육 상담 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의사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투자도 벌이며 미국의사협회 보수교육프로그램도 후원했다.





1996년 이전에는 연구용으로 이용부담 없이 검사가 가능했다. 이미 1996년에 상업화된 것에는 미리어드 외에 온코메드(Oncormed)나 펜실베이니아대의 연구소에서 출시한 것도 있었다. 제품마다 방법이 나 검사하는 유전자 부분 등에서 차이가 났다. 공공연구기관에서 사용되면서부터 대체 어떤 검사법이 표준인가에 대한 논란이 학계와 의료계에서 일어났다. 미리어드는 미국 내에서 보험자들과 계약을 하는가 하면 의료기기회사와 합작해서 의사들에게 마케팅을 강력하게 벌였다. 국제적으로도 캐나다, 영국, 독일,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기업들과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 국가에서 관련 검사를 배타적으로 제공했다. 다른 회사가 영국의 NHS와 라이선스 비용이나 로열티 없이 사용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어 회사의 유럽시장 확대 전략상 난항을 겪기도 했다.

유전자 검사의 마케팅과 미리어드의 우세는 다양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 연장선에서 작년 대법원 심리가 열린 것이다. 유전의학자 단체 등이 독점적 라이선스와 고비용을 초래하는 인간유전자 특허를 금지하라는 주장을 했다. 캐나다와 유럽에서도 반대가 잇달았다.

애초 유타인구데이터베이스는 상업적 기관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렇지만 가족계보와 의무기록, 유전자정보 등 상관성 정보는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기밀보호 문제, 상업화의 문제, 개인정보와 집단정보, 익명화, 유전물질의 बैं킹과 표본의 보관, 소수자와 인종집단에 대한 차별과 낙인의 가능성 등이 윤리적 쟁점이 된다. 특허부여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 왔고 작년 대법원 판결도 이와 관련된다. 미국 특허 및 상표등록청(USPTO)의 Utility Examination Guideline 자체가 논란이다. 작년 대법원 심리에서 미리어드와 함께 피고가 된 미국 특허청의 기준은 세 가지다. 첫째, 신체 밖으로 추출된 DNA는 신체 내의 것과 다르다는 것으로 염색체와 화학적으로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물질이라는 것이다. 둘째, 상업적으로나 진단, 치료에 새롭고 유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기준은 1980년 연방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특허의 법적 기준으로 거론되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novelty). 이전에 일반에 드러난 적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유전자나 단백질이 자연에 존재한다면 일반에 사용 가능한 채로 있었던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개별 유전자가 직접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고 동정해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분리가 특허라는 보호를 받을 만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둘째, 발명이어야 한다(inventiveness, non-obviousness). 신청자는 이미 알려진 것과 비교해서 그 방면의 다른 사람이 보기에 뻔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산출에 인간의 발명 부분이 많아질수록 특허 부여의 기회는 늘어난다. DNA 시퀀싱이 이제는 발명에 가까운 기술인 시기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과 같이 공정이 산업화되기 이전인 초창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일어서 제품특허가 아닌 방법특허로 분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미국 특허의 경우 노력의 양에 따라 특허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전기적 수단으로 시퀀싱의 성격이나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라면 공정이 사소해도 이 요건에서 특허부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있다.

셋째, 활용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usefulness). 유럽에서는 '산업적인 응용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에 상응하는 것은 유용성이다. 앞서 언급한 2001년 미국 특허청 기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신뢰할만한 유용성'이라고 되어 있다. 신뢰할만하다는 것은 특허신청 당시 입증 안 되더라도 이론적으로 가능해야 함을 뜻한다는 해석이 있다. 대규모 시퀀싱 기술이 개발되어 기능을 알지 못하는 DNA 시퀀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것을 다 특허부여하는 미국 기준은 낮은 기준이라는 비판도 있다. 실제로 구체적인 유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주장하는 유용성은 실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의 특허부여기관(EPC)에서는 특허자격의 예외로 삼는 것이 있다.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해 상업적 악용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럽의회 회원국가에서 특허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공공질서 및 도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의 산물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작년 5월 미리어드와 미국 특허청을 피고로 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9명 전원 일치로 피고가 패했다. 물론 심리가 있기 전에 이미 전문가들 중에는 유전자 특허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지 실제적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여간 판결은 분리된 인간유전자는 자연의 산물이어서 특허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허 요건에 견주면, 회사측 주장대로 설령 그것이 자연에서 그 모양대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리어드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판결이 이 구분을

을 분명히 했다. 분리된 DNA는 특허를 줄 수 없지만 합성된 DNA 즉, 실험실에서 만든 cDNA(complementary DNA)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다는 논지였다.

작년 5월 비슷한 시기에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난소암의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예방적으로 양쪽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 이 유전자가 주목을 받았다. 3,000달러나 되는 유전자 검사비용에는 미리어드 특허 비용이 감안된 것인데 매우 높은 가격이다. 졸리의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애초에 BRCA 유전자의 위험추정 자체가 높게 추정됐다는 주장도 있다. 많이 걸린 대가족들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해서 위험추계가 이뤄졌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유전자 특허의 문제가 기존의 타당성이나 관련 연구윤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유전자의 위험분율을 어떻게 추정하는가 하는 부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리어드의 사례를 중심에 놓고 이러저러한 논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미리어드의 사례는 유전공학의 역사와 함께 다양한 이슈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법학계, 생명윤리나 의료윤리학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작년 미국에서 언론과 일반의 관심을 끌면서 크게 논란이 됐다. 유전자 특허의 문제에는 인구집단에서의 위험추정, 특허부여 기준의 국가 간 차이의 문제, 기준 자체의 타당성, 기준심사의 타당성, 그리고 소비자가격이나 영리보험의 보험수가의 문제 등 복잡한 사회적, 윤리적, 정책적인 이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발명특허**

강명신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 곳곳의 'IP 네비게이션'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지역지식재산부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수치 그대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배양시켜 우수 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시장에서 선제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다면 국가 경쟁력 강화의 더할 나위없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식재산 전략과 재원을 통합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로 하여금 지역 곳곳의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주관하는 곳이다. 참신함과 열정이 가득한 구성원들을 만나보자.



지역지식재산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청은 2004년부터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하여 2014년 현재 그 수가 30개소에 이르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부는 지역의 지식재산 거점기관인 지역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2005년에 신설되었는데, 지역센터의 조직, 인력, 예산, 평가, 교육, 전산 등과 같이 조직 경영적인 부분을 아우르며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센터 운영을 통한 수많은 성과, 실적 통계 등을 이용해 지역센터 체질개선, 사업 구조조정, 지역지식재산 동향파악, 정책방향 설정 및 홍보, 중장기 발전 플랜 기획, 대정부 대응, 지자체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지역지식재산 정책 수행의 컨트롤 타워, 스피ن 닥터로서의 역할이 진정한 지역지식재산부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지식재산부는 지역센터 운영부터 시작하여 IP스타기업 육성사업, 전통산

업 지식재산경쟁력제고사업, 지역지식재산 인프라구축사업 등의 사업기획 및 관리,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 지식재산 정책동향 보고서 발간, 지역지식재산창출사업 지역경제효과분석 등과 같은 심도 있는 정책발굴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지식재산부는 한국발명진흥회 하나의 부서이면서도 타 부서와는 차별되게 비교적 넓은 스펙트럼의 지식재산전략 및 조직경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높은 성과는 다시 사업 재원 확대로

• 지역지식재산부는 매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또 그만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는 비단 지역지식재산부 단일 주체의 노력이 아닌 특허청과 지역센터, 지자체, 기업 모두가 하나로 융화되어 도출한 결과라며 구성원들은 말했다. 그 중에서도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식재산에 강한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IP스타기업의 출원 실적은 전년 대비 116.4%(1,160건)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고객 만족도는 91.4점으로 역시 103.7%를 초과 달성하는 우수한 결과를 도출했다. 지원받은 외부 객체에 의한 성과만 우수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성과도 있었다. 홍성일 부장은 “지역지식재산부는 지역센터 구성원이 바라보고, 평가하는 관리·운영 능력 만족도 조사에서 90.06점을 받아 지역센터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IP성공사례의 요람 • 사업 수행시 중점을 두는 사안은 여타 단일 사업처럼 단편적 성과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시 지역 사업과 연계·확장할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또 지역센터를 대표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범 사례가 되어야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지병석 계장은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현 정부의 모토인 창조경제에 부합하기 위해 ‘13년에 어렵게 첫 삽을 뜬 국민행복기술구현지원사업이 기억에 남는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부처 협력 노력이 인상 깊었고, 그 중 3명의 창업자가 발굴되어 현재 서울대 IBK커뮤니케이션 센터에 입주한 것이 소중한 성과”라고 전했다. 또한 장인준 주임은 “지역센터의 복잡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공유

하기 위해 RIPC 그룹웨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면서 “예산관리, 기업지원관리 등 기본적인 실적관리 시스템에서 진일보하여 지원사업 신청(기업), 입찰등록(수행사) 기능까지 전산화하면서 유례없는 독창적인 업무관리 툴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지역지식재산부 • 최근 가장 이슈가 되었던 일은 6월달에 진행된 지역지식재산부 워크숍이었다고 한다. 현우열 주임은 “워크숍은 전체 부원과 강원지회, 광주지회, 부산지회,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함께 단합하여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매우 좋은 시간이었다.”며, “지회, 지부 컨설턴트들은 각 지역 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진솔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또한 임달문 계장은 “지역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을 한차원 고도화하기 위한 컨설턴트 역량 강화에 대한 개선방안과 요구사항도 들으며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지역지식재산부는 지역 사업을 총괄





지역지식재산부는 항상 지역지식재산 선진 정책을 선도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핵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콘트를 타워로서 현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허동욱 차장은 밝혔다.

성공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경쟁력 • 지역지식재산부에서 원활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융합적 사고 및 오픈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하다. 30개에 이르는 지역센터를 성공적으로 경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평가, 인사, 기획, 회계, 전시행사, 교육, 전산 등 조직 경영에 필요한 ERP 기본 역량에서부터 180여명의 컨설턴트와 지자체 관계자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전략적 리더십과 의사결정 능력 또한 필요한 요소다. 홍성일 부장은 “다소 거창하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사업의 발전과 지속을 위해 대정부 스피ن닥터(spin doctor)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원만히 이해하고,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내야하는 지역지식재산부 업무범위가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지역지식재산부가 동떨어진 일을 하는 심각한 부서는 아니고, 매우 유쾌한 분위기에서 훈훈하게 화합하며 잘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황혜진 계장은 “홍성일 부장님의 서번트 리더십이 직원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팀원 스스로가 업무 역량 향상을 위해 알아서 노력하는 분위기이다. 정부부처에서 생산된 보고서를 상시 리뷰하고, 우수한 콘텐츠를 공유한다거나 멘토, 멘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선·후배간 화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상호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협업하고, 공존하며 시너지를 추구하라 • 지역의 성공적인 지식재산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지역센터의 근무 환경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방석 계장은 “이를 위해 금년 초 다양한 VoC 채널 가동 및 현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슈별 중요도와 시급성 위주로 재배열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지침에 반영하는 등의 과정을 상시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도입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홍성일 부장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새로 설치되어 개소하는 과정에서 한국발명진흥회 전북지부가 소속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여 우리회 위상과 영향력을 지역에 강화하게 된 것도 좋은 결실을 맺은 시도이자 변화”라고 평하며,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한국발명진흥회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지역의 유관기관, 지역센터, 중소기업, 지식재산서비스 업계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유기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가 공조되어야 한다. 지역 지식재산부는 항상 지역지식재산 선진 정책을 선도하고, 장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핵심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신념에 찬 포부를 밝혔다. **발명특허**



간단하게, 빠르게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Interviewee. 인천지식재산센터 김기완 센터장 & 김지훈 기획·관리파트장

세계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면서 지식재산을 비롯한 기업이 소유한 무형자산이 오늘날 기업가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하여 지식재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총 30개의 지역지식재산센터 중 이번호에는 인천지역의 지식재산창조경제를 이끄는 인천유일의 IP종합지원기관 인천 지식재산센터를 소개합니다.



Q 인천지식재산센터(이하 인천센터)에 대해 간단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기완 : 인천센터는 특허청, 인천광역시 그리고 관내 10개 기초 지자체의 매칭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총 1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관리자로 부장이 있으며 기획관리, 특허, 브랜드, 디자인, 지역지식재산인프라 파트로 나누어 센터 1부 5파트의 조직을 구성하여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IP경영파트너로 IP-Start up, IP-Scale up, IP-Star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전통산업 경쟁력제고 프로그램과 지역지식재산 인프라 확산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IP관련정책에 조언을 하는 역할을 하여 인천 유일의 IP종합지원기관이자 국내 지자체를 선도할 수 있는 IP지원 기관으로 여러 부문에 있어 면모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현재 인천의 IP 현황과 이 지역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지훈 : 인천광역시는 10개의 기초지자체 모두 지식재산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초로 지식재산행정인프라가 완비된 광역지자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

평구, 계양구, 서구의 8개구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산업재산 중심의 IP지원을 하고 있고 강화·옹진군 2개의 군 지역은 전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2차로 인천지식재산 5개년(2015년~2019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시대의 조류에 맞추어 인천 지식재산부문의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Q 인천센터는 지난해 고객 만족도·사업 목표달성·사례발굴 '만점'을 받으며 '특허청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기완 : 전체 스타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들어 기업이 원하는 핵심가치에 대해 대응했고, 인식이 부족한 10개 기초지자체마다 공무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강화·옹진군 지역의 전통 특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출원을 지원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강화·옹진군의 특색을 알리고 지역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전문적이고 힘이 될 수



있는, 친근하고 부담 없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센터가 되기 위해 인천 기업, 시민, 지자체의 지식재산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정부의 국민행복기술구현에 발맞춰 기업, 학생, 시민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생태계 플랫폼'을 확고히 구축해나가겠습니다.

Q 인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권역별 무료상담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기완 : 권역별 무료상담소는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출원지원 등 인천센터 사업의 수요를 확충하고 지식재산권 창출의 신규 수요발굴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기업인, 일반인들이 쉽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전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별 주요 거점 기관에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기업위주의 지원시스템에서 탈피해 지식재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신규창출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 상담시간은 매주 화요일 2~5시까지 개인 및 기업당 1시간씩이며 상담신청은 인천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담당자(김용덕 컨설턴트) 이메일로 발송해 예약해주시면 신청서 접수 후에 상담시간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Q 특허청장상 포상금 일부를 불우이웃 성금으로 기부한 것 외에도 각종 봉사활동과 지식재산교육 등의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라 들었습니다.

김지훈 : 인천센터는 지식재산이 어린 아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득해야 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아동, 청소년 관계기관으로 물색하고 알아보던 중 '디차힐'이라는 보육원과 연이 닿게 됐습니다. 우리는 단발성에 그치는 나눔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 지난 4월 16일 중구 운북동에 위치한 디차힐에서 지식재산 행복나눔 기부활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우선 포상금 중 100만원을 지식재산 행복나눔으로 실천했는데, 디차힐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되는 9월 이후 아이들을 위한 발명, 창의성, 지식재산 관련 교육 등으로 재능기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에게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꿈과 희망 그리고 창의성, 발명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나눔 및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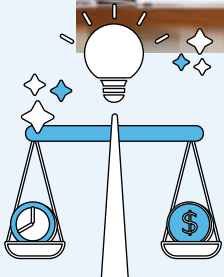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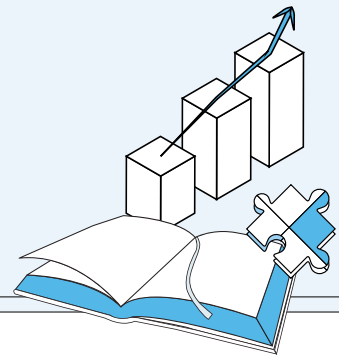
Q 올해는 어떤 면에서 더 노력을 기울이실 예정이신가요?

김기완 : 2013년까지는 IP스타기업, 특허·브랜드·디자인 등 기능별로 분류해 지원하고 추진하던 기존 방식에서 금년부터는 Start-Up → Scale-Up → IP Star의 성장모델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개편, IP경영을 처음 시작하는 기업을 발굴해 집중육성하고 있습니다. 전통산업IP경쟁력제고, 지역지식재산창출기반구축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어 총 35억 원의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더불어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 유산을 지식재산으로 개편해 경제가치 있는 프로젝트로 발굴하기 위한 전통산업IP경쟁력제고사업으로 '강화 순무'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특산물 명칭에 대한 보호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해 센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는 타이틀로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전국 센터로는 처음으로 『1세대 1특허 갖기(가칭)』 운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및 교육청 등과 연계해 동·주민센터, 아파트부녀회, 학교 등의 단위별로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진대회를 통한 우수한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향후 사업화까지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창조경제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사(士)1촌(村)제』를 연계·실시해 1개 특허사무소의 지역 변리사와 1개 지자체 간의 매칭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재능을 나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발명특어**



인천센터는 올해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한 인프라와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천지식재산센터 전화 : 032-810-2872~2882 / 팩스 : 032-810-2837



전자향수의 시대가온다

▲ 클레오파트라는 향수를 좋아했다. 그녀는 손을 씻을 때 항상 장미, 샤프란, 제비꽃을 으개서 만든 향수를 사용했다. 로마의 제왕 카이사르의 마음을 사로잡고 안토니우스의 이집트 정벌마저 저지시켰던 그녀의 매혹적인 아름다움에는 향수가 숨어있었다. 향수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을 자극하는 것일까?

글_ 김성진 Master,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학박사



향기와 냄새 • 과학자들은 동물들 중에 냄새로 짝을 찾는 무리가 많음을 밝혀냈다. 보이는 것보다 각자의 몸에서 나오는 페로몬의 향에서 짝을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포유류는 짝짓기가 주로 밤에 이뤄지기 때문에 후각의 의존도가 높다고 하버드대 캐슬린 교수는 말한다.

사람의 경우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외모와 능력을 많이 따지지만 기본적으로는 향과 냄새에 끌린다. 한 실험에서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48시간 동안 입었던 속옷을 주고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입을 옷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여성들은 제각기 자기 취향에 맞는 남성의 속옷을 냄새만으로 찾았다. 몸에서 나는 고유의 체취에서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여성이 찾는 냄새는 자기 아버지의 체취와 유사한 것임을 알게 됐다. 이렇듯 동물이든 사람이든 냄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각의 동작 • 냄새를 판별하는 우리 후각의 동작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일단 콧속으로 냄새 분자가 들어오면 다양한 수용체들과 반응하기 시작한다. 들어온 분자와 반응이 되는 수용체들은 자신의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된다. 뇌에서는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수용체들의 종류를 보고 냄새를 판별하게 된다. 하나의 향기 안에는 다양한 분자들로 인해 여러 가지 수용체들이 동시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공감각을 통해 냄새의 종류를 판별하게 된다.

후각의 동작을 흉내 내는 장치가 최근 들어 다양하게 연구·개발되고 있다. 인간보다 많은 수의 수용체를 가진 개가 피부암이나 방광암을 후각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는 사례가 소개되면서 의료 진단 분야에서도 전자코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가스 냄새를 맡거나, 상한 음식을 알아내는 부분적인 의료 진단에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고도의 기술을 통해 사람의 후각을 능가하는 전자코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대 박태현 교수 연구실은 수용체의 유전자를 대장균을 통해 발현시킴으로써 바이오 전자코를 통해 후각 연구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후각 연구와 관련하여 7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¹⁾

후각의 성능 • ‘후각에 대한 원리가 계속해서 밝혀졌지만, 사람들이 후각과 두뇌의 융합 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종류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는지는 늘 의문이었다. 고대부터 향은 인류의 삶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향에 대해서는 항상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2004년에 와서야 미국의 리처드 액셀 교수와 린다 벅 교수가 후각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



출처 : <http://ecastudent.blogspot.kr/2012/02/week-125-electronic-nose-and.html>

상함으로 그 신비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했다. 사람은 천여 가지 종류로 구성된 약 오백만 개의 후각 수용체로 냄새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천여 가지 중에서도 사백여 가지 정도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한 수용체당 두세 개의 분자와 반응할 수 있고 냄새 판별이 여러 개의 수용체에 대한 반응의 조합으로 이뤄지기에 만여 가지 정도의 냄새를 판별한다고 두 교수는 논문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2014년인 올해, 깜짝 놀랄만한 새로운 이론이 발표됐다. 인간이 판별할 수 있는 냄새의 수는 만여 가지 수준이 아닌 엄청나게 많은 종류, 즉 조 단위의 냄새들에 대해서도 판별이 가능하다는 가설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발표자인 보스홀 교수팀은 “서로 다른 분자들을 인위적으로 섞어 냄새를 맡게 한 결과 사람들은 기존 이론보다 훨씬 정교하게 이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며, 더불어 향수 업계에 “더 다양한 향기 개발에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끝으로 • 최근 기업들은 향기를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 전달하는 방식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일본의 통신 연구기관인 NTT 시스템즈는 휴대폰 등을 통해 통신으로 향기를 주고받는 장치를 연구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 이미 32종류의 천연 액체 향을 통해 36종류의 향기를 발현할 수 있는 향기 통신 장치를 시험해 보기도 했다. 조합을 통해 더 많은 종류의 냄새를 낼 수가 있으며 조합에 참여한 기본 향도 더욱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치가 발전된다면 조 단위의 냄새를 발현하는 전자 향수의 역할을 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을 걸로 보인다. **발명특허**

각주
1)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인간의 후각 기능과 유사한 바이오 전자코 개발 중, 한국경제, 2011-01-24



김치 세계화를 위한 지식재산과의 동행

(주)한성식품

한국과 한국사람을 논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김치다.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와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김치는 시대와 삶의 모양이 바뀐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의 1호 음식이다. 모두가 김치를 담아 장독대에 묻던 시절, 누군가는 이 김치를 만들어 팔겠다고 했다. 파는 김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콧방귀를 쏘았다. 세상에 누가 김치를 사서 먹겠느냐는 의미였다. 김치를 팔겠다고 두 소매를 걷어붙인 사람은 국내 최초로 김치명인을 부여받은 김순자 여사였다. 현재 (주)한성식품 대표이사인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맛 좋고 빛깔 고운 김치를 접할 수 있도록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01 한성식품은 200여개가 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세계 14개국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는 글로벌 김치선도기업이다. 사진은 한국발명진흥회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좌)과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우).



저염김치의 문을 열다 • 현재 김치시장은 상품김치와 자가제조 김치, 두 가지로 나뉜다. 국내 김치 소비는 지난해 대비 약 4% 향상했으며 이 중 가정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는 사례와 상품김치를 사서 먹는 비율은 51:49로 거의 엇비슷한 수준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준이 계속 진행된다면 2020년 정도에는 소비김치가 약 70% 이상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가족구성원의 수가 적어지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면서 김치를 대하는 사람들의 자세 역시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치를 구입하는 곳이 주로 식당 등의 음식점임을 감안할 때, 국민들의 외식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표를 그대로 반영하는 김치.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는 국민 먹을거리였던 김치를 시장으로 끌고 나온 장본인이다. 어려서부터 김치를 워낙 좋아했지만 자극적인 재료에 알레르기가 심해 마음 놓고

김치를 먹을 수 없어 직접 만들어보기로 했다.

“어려서부터 알레르기가 굉장히 심했어요. 때문에 다른 음식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김치와 밥만 주로 먹었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김치라도 많이 먹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자극적이면 먹지 못했어요. 물에 씻어서 싱거운 김치를 먹어야 했죠. 싱거운 김치를 먹다가 어느 날 짠 김치를 먹으면 김치보다 밥을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김치를 더 많이 먹고 싶은데 말이죠. (웃음) 영양이 풍부한 김치를 마음 놓고 먹어보자고 해서 저염김치를 만들었어요.”

지금이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염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녀가 김치판매를 시작한 19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은 싱거운 김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치가 삼삼하다 보니 손님들이 김치를 더 찾게 되었고 일부 급식소에서는 그녀에게 ‘많이 판매하려는 상술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02

“오해를 풀기 위해 애를 많이 썼어요. 업체에서 원하는 대로 간을 조절했지만 결국 저희가 만들던 맛인 저염김치로 다시 돌아갔죠. 시간이 지나니 손님들도 저염김치를 더욱 좋아한다는 평가가 돌아오면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성식품은 약 15년 전부터 일반 김치보다 짠 맛이 약한 브로콜리 김치와 깻잎말이김치 등을 판매하고 있다. 브로콜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역사가 길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면 김순자 대표의 선견지명이 한성식품을 시대보다 반 보 앞서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전통김치, 그리고 세계화 • “우리 제품은 전통식품이 기본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전통’과 ‘정통성’을 토대로 만들려고 하죠. 그 전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젓갈도 뼈째 몇 시간씩 달이고 풀도 직접 썰는 방법을 말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김치의 세계화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죠. 세계인들이 추구하는 게 모두 다른데 우리나라의 입맛만 고집하면 그들의 호감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때문에 전통 김치를 토대로 젊은이와 현대인, 그리고 세계인까지 좋아하는 제품을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986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뛰어든 그녀는 약 1~2년 만에 가파른 성장을 이뤘다. 영업을 위해 가게 혹은 기업의 문을 두드리면 열의 아홉은 김치를 구매하겠다는 답변을 줬다. 한 번은 영업하고 돌아가기 전 이미 회사로 주문서가 들어와 납품을 한 적도 있다.

“정말 신나게 영업했어요. 그런데 납품 후 몇 달 후부터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자만했나 싶었죠. 젊은 나이에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사업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잘 아는 게 김치인데 이렇게 즐겨하던 제품을 판매하는 것조차 실패한다면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고 원인을 찾기로 했죠.”

답은 결국 ‘입맛’이었다. 전국 팔도의 김치맛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간파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본래 서울과 경상도, 전라도와 충청도 등 지역에 따라 음식 맛이 다 다르지 않던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김치를 개발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후부터 김순자 대표는 매일같이 배추와 마늘, 고추와 젓갈에 묻혀 지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연구하는 생활을 계속 했어요. 100일 동안 교박 밤을 새워가며 연구한 결과 저만의 맛을 만들 수 있었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의 아주머니들을 다 모아놓고 개발한 김치를 먹어보고 했어요. 모두 맛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신이 났죠. 그때 다시 업체에 샘플을 보내줬어요. 모두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발명진흥회와의 인연, 그 후 더 성장한 한성식품 • 한국 발명진흥회와의 인연도 그때부터 시작됐다. 표준화된 김치맛을 특허로



03

보호받아야겠다고 생각해 특허출원을 하고자 1987년도에 특허청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하지만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사실 김치사업을 시작할 때도 '누가 김치를 사먹느냐'는 반응이 주였다. 이번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역시나 다르지 않았다.

"그때는 김치 특허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특허청을 돌아다녔죠. 제가 하도 청사를 들락날락 하니깐 나중에는 오히려 그분들이 저를 위로하더라고요. (웃음) 이후 93년도쯤 부천으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특허에 대한 생각은 잠시 내려놨어요. 마음속에 묻고 있었죠. 특허 없이도 잘 살아왔으니 그냥 지금처럼 앞으로도 해보자는 마음으로요."

시간이 지나 99년이 됐을 때 김치 특허법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부터 김순자 대표는 갖고 있던 노하우를 모두 방출해 특허출원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외국인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소개하기 위해 그동안 생각한 레시피를 차례로 실현시켰다. 미니롤보쌈김치와 깻잎말이김치, 브로콜리김치 등 80여종 이상을 출원했고 27건에 대해서는 최종 특허출원을 받았다.

김 대표의 이야기를 듣던 한국발명진흥회 오승택 사업지원본부장은 "김순자 대표는 기업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고 끈기가 있다"며 "배추값, 고추값이 올라도 국내산만 고집하더라.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상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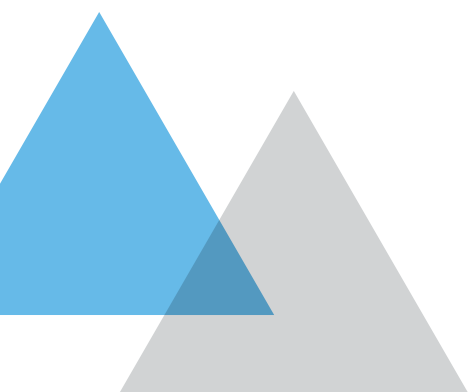
아무리 어려워져도 타협하지 않는 마지노선이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철학 때문에 다른 회사와의 경쟁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김치 세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김순자 대표는 "특허 등록된 제품들이 수출로 이어지면서 매출을 올리는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며 "특히 동결건조김치는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선정받았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우리나라의 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다"며 앞으로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한성식품은 올해 보유특허 '동결건조김치의 제조방법', '스낵김치의 제조방법'에 대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평가지원을 통해 약 11억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재무건정성을 확보하고 사업확대기반을 마련했다.

한성식품은 오는 2017년, 기업의 창립 35주년을 기념해 미국에 지사를 세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유럽시장 등도 새롭게 개척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김순자 대표는 "더욱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새로운 보호장치를 찾아나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발명특허**

02 특허받은 치차이역말이김치. **03, 04** 김순자 대표는 제43회 발명의 날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으며, 대한민국 식품명장 제호로 지정돼 있다. **05** 지난 29년 동안 전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김치의 맛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개발한 결과, 지금까지 80여종 이상 특허출원을 했고, 국제특허까지 포함해 27건에 대해 특허등록을 마쳤다.



아이처럼 보고, 아이처럼 상상하다



15세 소년 발명가 김태현 군

소년의 바람은 크지 않았다.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시계를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방문했던 소년은 과중시계를 비롯해 다양한 과학기술이 가득했던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소년의 꿈은 어렵지 않은 곳에서 실현됐다. 초등학교 4학년 ‘각도’ 단원을 공부하다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에 “유레카!”를 외쳤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계 ‘앵글랜드’를 만들었다.



01

01 각도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앵글랜드’. 02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영국의 대영박물관에 전시된 전시품들은 김태현 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03 ‘앵글랜드’ 발명가 김태현 군.

아이다운 ‘상상’에서 시작된 발명 · 중학교 2년에 재학 중인 김태현 군은 또래 아이처럼 성적을 고민하고, ‘살국열차’와 같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을 꿈꾼다. 부동 단백질이 인간의 인체에 어떤 방법으로든 저장되어 세포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는 엉뚱 발랄한 소년이다. 어릴 때부터 자연 속에서 뛰어 노는 것이 익숙했고, 박물관과 과학관은 일요일마다 갈 수 있는 놀이터였다. 그 덕분에 김태현 군의 상상력은 무언가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다.

“가수 이승철 아저씨가 감염으로 실명 위기에 놓인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와줬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무척이나 감동을 받아서 저도 아프리카 어린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시계가 특별한 선물이에요. 수학 공부도 하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시계의 역할도 하는 일석다조의 시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아프리카를 위한 작은 바람이 만들어낸 ‘앵글랜드’ · 김태현 군이 발명한 ‘앵글랜드’는 시계의 시침과 분침을 이용해 각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시계이자 교구이다. 앵글랜드의 원리는 이렇다. 시계의 분침이 한 바퀴 즉 360°를 돌면, 시침은 1시간 즉 30°를 이동하게 된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분침이 5분 즉 30° 이동할 때 시침은 2.5° 이동한다. 김태현 군은 2.5°가 12칸이 모여진 30°



각도 바늘을 시침 아래 부착해 시침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각도를 산출할 수 있게 했다.

“잉글랜드는 4학년 때 시계의 분침과 시침 사이의 각도를 계산하는 수업 문제에서 비롯됐어요. 시침과 분침 사이의 각을 알아낼 수 있는 계산법을 나름대로 찾다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시계의 12라는 숫자를 응용하면 각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수학 공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잉글랜드를 보면 시침이 한 시간을 움직이면 30° 이동한 것이고, 분침이 5분 움직이면 시침은 30°를 12로 나누어 2.5°가 이동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원리만 이해하면 느린 암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분침과 시침의 사이 각도를 조금 쉽게 이해하고 계산해낼 수 있으니 아프리카 친구들의 창의 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해요.”

12살의 소년이 ‘잉글랜드’라는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던 데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신 엄마와 함께 제품의 재질, 디자인, 색상 등 외형적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30° 각도인 시계 바늘을 시침과 연결해 움직이게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방학 때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많은 공부를 했죠. 밤을 새우며 적당한 대안을 찾아 시안을 만들고 설계하시는 분께 직접 찾아가서 보여드린 후 3D 설계를 부탁해서 겨우 완성 시킬 수 있었어요.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잉글랜드는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덕분에 학교 성적은 엉망이 됐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추억거리가 됐습니다.”

우연한 ‘발견’에서 시작하다 • 김태현 군은 배운 것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것을 단지 실현한 것이기에 ‘발명가’라 불리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저 혼자 노는 ‘놀이’가 발명인 줄도 모르고 궁금한 것을 찾아가며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다.

“앞으로는 시각 장애인이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발명을 위해서는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해요. 시간을 갖고 서두르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한 발견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 발명의 반은 우연한 발견이었던 거예요. 많은 친구들도 저처럼 작고 소소한 발명이라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만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김태현 군의 엉뚱한 ‘상상’이 보다 더 큰 ‘발명’이 되기를 바란다.
발명특어



개성 가득 개인의 능력이 샘솟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경복궁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사무실 안, 김 과장은 오늘 자신의 업무스타일에 맞게 자리를 찾아 앉는다. 이 대리의 어제의 자리가 김 과장의 오늘의 자리가 되는 곳.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생소한 풍경이 이들에게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곳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옥이다. 지정된 개인 자리가 없는 대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사옥 전체로 확장됐다.





01

02

03

korea microsoft

01 방문객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02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업무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찾으면 그곳이 오늘의 오피스가 된다. 03 아름다운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휴게실. 04 접견실 한쪽에 마련된 미팅 테이블.

04



05. 06 어디서든 협업이 가능한 공간 07 공간 한편에는 직원들의 사물함이 구비되어 있다. 08 각종 허브 존에는 직원들을 위한 여가시설이 있다.

다양한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오피스'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트리의 사옥은 개인 지정석을 없애고 업무방식에 따라 공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프리스타일 워크플레이스(Free Style Workplace)'를 구현했다. 기존 사무실과 비교해 본다면 업무 환경과 구성원의 특성을 배려한 혁신적인 '신개념 사무실'인 것이다. 업무공간의 제약이 사라지자 다양한 부서와 협업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다보니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업무보다 여러 사람들과 한데 모여 함께 하는 일이 많아졌다.

개인용 책상, 컴퓨터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사무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인 클라우드(cloud)를 적용했다. 클라우드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korea
microsoft



또한 링크(Lync), 야머(Yammer), 셰어포인트(SharePoint), 스카이프(Skype) 등의 다양한 기업용 소셜네트워크(SNS)를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업무, 사람과 연결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사람들은 SNS를 통해 회식에 대해 자유롭게 투표하거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나눈다. 때로는 직원 간의 칭찬을 주고받기도 한다.

층마다 가지고 있는 컬러 콘셉트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옥이 광화문이라는 입지적 특성에 맞춰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살린 전통 오방색을 적용한 것이다.

마침 오방색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로고 컬러인 파랑, 빨강, 초록, 노랑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여기에 맛있는 벽이나 회의실의 유리 벽에는 한국의 보자기, 고려청자, 학 등의 문양을 더해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이끌어냈다.

자유롭게, 오늘의 공간을 선택하는 직원들 •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꼼짝 않고 일만하는 직장인은 가라!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만 있다면 자신이 있는 곳이 곧 사무실이 된다.

'내 자리'를 중요시하는 기존의 사무공간을 해체한데는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살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벽과 문으로 막혔던 공간은 더욱 넓은 공간으로 확장됐고, 사람들은 편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보는 것보다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또한 이전보다 좀 더 오픈된 공간으로 바뀐 만큼 회의실, 개인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포커스 룸, 개인적인 통화를 위한 폰 룸이 구성되어 있다. 폰 룸에 들어가 화상채팅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이색적이다.

직원들만 출입하는 사무 공간인 13층부터 16층은 각각 층마다 업무의 특색에 따라 오방색을 적용했다. R&D와 CSS부서가 있는 13층은 건강을 상징하는 노란색을, 세일즈와 마케팅 부서가 있는 14층은 '사업에 대한 허가'라는 의미의 초록색을 사용했다. 협력업체와 일을 처리하는 부서가 많은 15층은 긍정적인 느낌의 파랑색을, 재무부서와 사장실이 있는 16층은 회사의 비전을 담아 정열, 열정의 빨강색을 사용했다.

경복궁을 배경으로 커피 한잔과 함께 가벼운 미팅, 대화를 즐길 수 있는 '허브'(Hub)는 직원들의 동선을 고려해 오피스 중심에 배치했다. 허브 존에 들어서자 컬러 콘셉트가 극명하게 눈에 띈다.

벽의 컬러뿐만 아니라 타일, 가구, 조명까지 동일한 색상으로 매치해 색채의 강렬함을 더했다.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간단한 음료와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업무에 지친 피곤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있었다.

업무의 공간 제약이 사라져서 일까? 타 부서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고 스스로의 일 방식도 공개되어 있으니 그 모습이 흥미롭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없었던 직원들의 얼굴을 자주 마주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협업'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곳 •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11층과 1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방문객들이 많은 만큼, 이곳이야말로 사옥의 '꽃'이라 할 만한 장면들이 눈앞으로 펼쳐졌다. 다른 무엇보다도 환상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손에 잡힐 듯 경복궁이 내려다보이고 저 멀리 인왕산까지 한 장의 그림처럼 담이진다. 여기서는 누구나 아름다운 이 전망을 공유할 수 있다. 좋은 전망은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유리창가가 복도 혹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휴게실로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업무공간이 많은 만큼 '여가시설' 또한 대폭 늘어났다. 당구대, 탁구대, 안마의자, 게임룸 등 다양하게 구비됐다. 자유로운 분위기와 환경에서 즐겁게 놀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누구나 꿈꾸는 직장을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선두에서 실천하고 있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학교에서나 볼 수 있는 '사물함'이다. 어찌 보면 개인공간을 사물함으로 압축한 것 같기도 하다. 모양도 독특하다. 멀리서 보면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낙서 같아 보이는데 각자의 개성이 묻어있어 웃음을 자아낸다. 물론 개인 공간에 비해 사물함의 크기는 턱없이 작다. 이는 보관하는 자료 가운데 종이 출력물 비중을 줄이고 중요한 문서는 디바이스에 담아 업무 이동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뜻이 담겨 있다.

업무공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매일 아침 짐을 싸고 풀어야 하는 불편함으로 불만을 표하는 사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독창적인 공간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는 직원들의 생각도 움직일 수 있었다.

바둑판처럼 모여 있던 개인공간을 사옥 전체로 확장시킨 마이크로소프트, 기존 사무실의 고정관념을 탈피한 이곳이야말로 유연한 사무실 문화 'Free Style Work Place'이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은 자유가 허락되는 공간, 스마트 워크 플레이스(Smart Work Place)로 출근한다. **발명특허**

GLOBAL REPORT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각 나라별 지식재산기구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소개합니다

자료제공_한국지식재산연구원(KIIP)



일본 특허청, 「아프리카 지식재산제도 정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 개최

www.jpo.go.jp



지난 6월 13일, 일본 특허청(이하 JPO)은 6월 10일부터 양일 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WIPO 아프리카 펀드에 의한 「아프리카 지식재산 기구(African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OAPI)* 기맹국과 부룬디, 콩고, 지부티와 마다가스카르를 위한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

일본은 2008년 아프리카의 지식재산제도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 및 후발개발도상국에 대한 「WIPO 아프리카 펀드」를 창설했다. 동 펀드는 아프리카의 지식재산권제도의 보급, 동 제도의 운영이나 활용에 관한 인재의 발굴, 동 제도의 정비나 관계기관의 구축 및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회담도 그 활동의 일환으로서 개최된 것이다.

JPO 하토 히데오(羽藤秀雄) 청장은 아프리카 토고의 드라마니 다마 국민의회 의장, 오쿠타부 니쿠에 부름 고등교육·과학연구대신 등과 회담을 했다. 회담에서는 아프리카의 지식재산제도 정비를 위한 일본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일본의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지원·협력의 진전에 강한 기대를 나타냈다.

JPO는 지속적으로 WIPO와 긴밀하게 연대해 아프리카 지역의 지식재산제도 정비에 공헌할 예정이다.

* OAPI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봉 등 아프리카 16개 불어권 국가로 이루어진 지식재산 협력기구로, 카메룬의 야운데(Yaounde)에 본부를 두고 있음. 회원국은 베냉,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코트디부아르,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 기니, 말리, 모리타니, 니제르, 세네갈, 차드, 토고 등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한국과 5G 모바일 기술 개발 협약 체결

europa.eu



지난 6월 1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5G* 기술정의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2013년 12월, 유럽집행위는 5G 관련 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 on 5G)을 런칭해 향후 7년간 「Horizon 2020**」 프로그램을 통해 5G 민간 파트너십에 7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5G에 대한 글로벌 표준 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상호 운용을 위한 주파수 정책 교류 및 기술 표준화 그리고 관련 특허 이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 및 5G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협력 분야 중 하나인 미래형 네트워크(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5G, 클라우드 컴퓨팅)의 협력 범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EU의 5G 인프라 협회(Alcatel-Lucent, Atos, Deutsche Telekom, Ericsson, Nokia, Orange, Telecom Italia, Telenor, Telefonica 등)와 한국의 5G 포럼 간 MOU 협정도 체결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Neelie Kroes 부위원장은 5G가 구축되면 디지털 경제 및 사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며, 한-EU 양측은 5G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관련업계의 지원 하에 이와 같은 표준화과정에 동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합의된 선언문은 양측이 동 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 5G는 무선인터넷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용의 폭발적인 증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이자 인프라로서, 2GHz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4G 롱텀에볼루션(LTE)과 달리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LTE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화질의 영화를 1초 만에 전달할 수 있음.

** 유럽연합은 연구와 시장의 연계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x-x-x-frame programme」의 명칭을 「horizon 2020」로 변경했으며, 「horizon 2020」을 통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00억 유로를 투입할 예정이다.

독일 정부, 구글에 대한 강력한 규제 검토

www.faz.net



지난 5월 16일, 독일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로 인해 독일 정부가 구글의 분리 등 강력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90% 이상으로 EU는 2010년 이후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5월 15일 독일과 프랑스의 400여개 인쇄 매체 업체들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을 주장하며 동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관련해 독일 Sigmar Gabriel 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구글에 대해 인터넷 시장에서의 반독점 규제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해 구글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후의 규제 방법으로써 기업 분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구글에 적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기업 분리 대신 유럽 내 구글과 같은 인터넷 업체를 설립해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방법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에 대한 독일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의지는 유럽의 인터넷 산업이 미국 업체에 의해 위협당하고 있다는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독일 연방카르텔청 Andreas Mundt 청장은 시장지배력을 통한 권리남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반독점 규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독점법으로 사생활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포괄적으로 구글의 다양한 사업 영역에 대해 조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GLOBAL REPORT

미국 특허상표청,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 발표

www.patentlyo.com



지난 6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이하 USPTO)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USPTO는 동 지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 특히 컴퓨터로 구현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비 지침을 제공하고자 했다.

동 예비 지침에 따르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심사는 다음의 2단계의 절차에 따라 검토된다.

- (1단계) 청구항이 ① 기본적인 경제원리(Fundamental economic practices) ②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 ③ 아이디어 그 자체 ④ 수학적 관계/공식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함.
- (2단계) 해당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면,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요소 또는 요소의 조합이 해당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 예컨대 ① 다른 기술 또는 기술 분야의 개량 ② 컴퓨터 자체의 기능 개선 ③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정 기술 환경에 구현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연계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제한에 도달하도록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USPTO는 동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동 예비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고려해 추후에 좀 더 상세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 금융 거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로서,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임.

미국 연방대법원, 인터넷을 통한 TV프로그램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인정

www.ipwatchdog.com



지난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사건에서 인터넷을 통한 TV프로그램 스트리밍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 Aereo는 서비스 가입자의 집에 개별적으로 작은 안테나를 할당·설치해 TV 프로그램을 공중파 방송과 동시 또는 다른 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했다. TV 제조·마케팅·TV프로그램 방송 등을 영위하는 원고 American Broadcasting는 피고가 스트리밍 하는 많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울러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했다.

동 사건에서는 피고의 서비스가 케이블 TV 회사의 방송 전송과 같이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공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publicly)」, 「실연(perform)」했을 것 2가지 요건이 요구됐다.

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2연방항소법원 또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했으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즉,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방송을 여러 개의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 여러 명의 시청자에게 동시 또는 다른 시간에 전송한 행위는 저작물을 공공연하게 실연한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106조 (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Lady Gaga, 자신의 「Judas」 노래 관련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

www.worldpreview.com



지난 6월 17일, 미국 팝가수 Lady Gaga는 자신의 노래인 「Judas」에 대해 작곡가로부터 제기당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가수 Rebecca Francescatti는 Lady Gaga가 2011년도에 히트시킨 「Judas」 곡이 13년 전에 발매된 자신의 노래 「Juda」의 일부를 복제했으며, 노래 제목 또한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일리노이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Marvin Aspen 판사는 Lady Gaga의 노래가 동일한 가사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테마와 전혀 다른 음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두 곡 사이의 유사성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Lady Gaga가 자신의 음반 발매 전에 Francescatti의 「Juda」를 들어 보았거나 알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유럽 상표청, 과일 또는 야채의 디자인 등록 거부 판결

www.rcip.co.il



지난 6월 18일, 유럽 상표청(OHIM)의 제3항고심판부는 과일 또는 야채의 형태가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심결했다.

| 하트 모양의 토마토 사건 |

네덜란드의 식물육종가인 A.C.J. Ammerlaan은 하트 모양의 토마토를 개발하고, 로카르노 분류 제1류-02군에 따라 2011년 디자인 출원을 했다. 이에 심사부는 과일 또는 야채는 「공동체디자인규칙」 제3조(a), (b)에 따라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부했다.

비록 하트 모양의 토마토가 '보통의' 유기체의 형태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유기체인 농작물은 '산업 물품 또는 수공예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유기체의 결과로 얻어진 형태는 '특별한 식물' 시료로서 보호받기 보다는 산업적 과정 또는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진 산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건에서는 주장 및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멕시코 특허청, iPhone이 iPhone 판매 통신사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주장 인정

www.reuters.com



지난 6월 6일, 멕시코 특허청(이하 IMPI)은 멕시코에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콜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iPhone이 현재의 3대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했다.

iPhone은 iPhone이 등장하기 전인 2003년에 멕시코에서 「iPhone」 상표를 등록했으며, 멕시코 최대 규모의 통신사인 America Movil, Telefonica, Iusacell이 휴대전화 가입 안내 광고 제목에 「iPhone」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Apple은 2007년에 멕시코에서 「iPhone」에 대한 상표출원을 했으나 iPhone의 등록상표로 인해 등록이 거절됐고, 그 후 Apple은 iPhone을 상대로 명칭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상표등록취소 등을 청구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IMPI는 통신사 3곳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인정했고, 「iPhone」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104,000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iPhone 측은 동 결정을 토대로 America Movil 등 3개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iPhone이 승소할 경우 3개 통신사는 「iPhone」 용어를 사용해 얻은 매출의 최소 40%인 약 10억 달러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Apple도 위 3개 통신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P NEWS

선진 5개국 특허정보 이용문턱 낮아진다! 5개국 청장회의에서 각종 특허정보 일반에 공개키로

특허청은 6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 누리마루에서 선진 5개국 특허청 (IP5) 회원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특허청과 함께 IP5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 특허출원인들에게 각종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특허청장은 특허심사진행정보 조회 서비스(OPD)의 대민공개 추진을 위한 세부지침과 추진 일정에 합의함으로써 각국의 특허심사진행정보가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청부터 시작되어 2016년에는 모든 청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5개국 청장들은 각국의 특허정보를 민간에 공개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금년 7월 1일부터 5개 청의 각종 특허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또한, IP5 웹사이트를 사용자 편의에 맞도록 재구성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누구든지 IP5 웹사이트를 통해 IP5 협력의 결과와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각종 특허관련 정보의 대민 제공 확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허 정보서비스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서 마련될 지재권 전략은 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난 2008년에 개최한 IP5 청장회의에서 IP5 협력 비전을 수립하는 등 IP5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면, 6년 만에 다시 개최한 이번 IP5 청장회의는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고객 가까이 다가가는 IP5 협력의 방향을 새롭게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있다.

* 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타카기 유시유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차장, 마셜 리 미국특허청 차장, 김영민 특허청장, 하도 히데오 일본특허청장, 베노아 바티스텔리 유럽특허청장, 쉐ن 창유 중국특허청장



특허청, 미래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IT 수출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힘써

특허청은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포럼」을 지난 6월 25일, 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더불어 행사 당일 오전 9시부터 삼성전자 등 대기업 임원과 국내 유일의 산업용 3D 프린터 개발 제조사인 캐리마 등 수출 IT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한 미래부(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지재권 분쟁 대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허청 지원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크게 '미국 특허소송 및 분쟁대응 전략' 강연 세션과 '모의재판(중재)'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먼저, '미국 특허소송 및 분쟁대응 전략' 강연 세션에서는 '미국 특허소송의 최신 동향 소개 및 특허 분쟁 시 법적 이슈와 대응전략'을 주제로 미국 지재권 최대 로펌인 피네간(Finnegan) 변호사이자, 미국 ITC 및 법원 지재권소송 경험이 많은 앤드루 선우찬호(Andrew Chanho Sonu) 등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응전략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모의재판(중재)' 세션에서는 세미나에 참석한 약 50여명의 기업 관계자들이 해외 로펌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공격 및 방어 대응할 수 있는 모의재판을 실습함으로써 지재권 보호 관련 인식제고와 분쟁대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한, 금번 세미나와는 별도로 사전에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의 경우에는 해외 로펌 변호사가 직접 해당 기업을 방문해 사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에 대한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의 분쟁 대응력을 키우고, 우수한 해외 로펌에게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이 지재권 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식재산으로
학위취득 가능해요”**

특허청은 금년 8월부터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시행에 따라 '지식재산 개론' 과목을 국내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등학교 및 동등 학력 이상인 자가 지식재산 계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열리게 됐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140학점)을 충족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번 '지식재산 개론' 강좌 개설은 지난 5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에 3개 교과목으로 구성된 '지식재산학' 전공이 신설되었기에 가능했다. 이 강좌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교육장에서 8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하루 3시간씩 15주간 실시되며, 특허·상표·디자인 및 저작권에 관한 법·제도 개론형식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허청은 이번 강좌개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 평생교육기관 및 대학 내 평생교육원에서도 '지식재산 개론' 등 지식재산학 전공과목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훈석 원장은 “이번에 개설되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특히 주부 등 경력단절 여성, 군장병, 퇴직자 등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상표출원, 이제 한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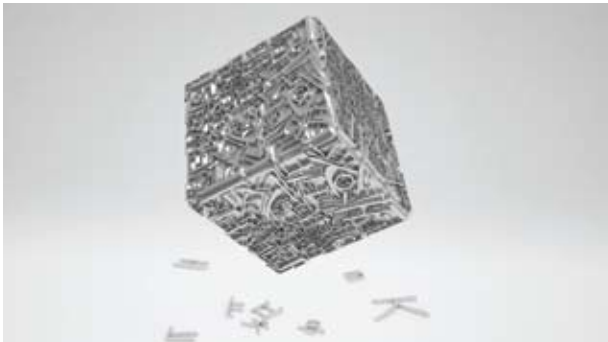
한글로 전 세계 19개 관청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검색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해외상표출원인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한국어 MGS (Madrid Goods and Services) 웹사이트가 세계지식재산기구와의 1년이 넘는 협력 끝에 2014년 6월 개통됐다고 발표했다. (www.wipo.int/mgs/?lang=kr)

기업들이 마드리드 국제출원 또는 직접 해외에 상표출원을 할 때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을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해야 하는데, 번역상의 문제와 각국 법제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상품명칭의 오류로 인해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다.

그러나 금번에 개통된 한국어 MGS에서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한글로 입력하면 영문 번역이 가능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포함한 오스트리아, 중국, 일본 미국 등 전 세계 19개 관청에서의 인정 여부가 표시된다. 또한 영어 이외의 일본어, 터키어, 중국어 등의 16개 언어로 번역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 이들 국가에 직접 출원하고자 하는 출원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박성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 약 25%의 출원이 상품명칭 등을 원인으로 하여 하자통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어 MGS가 해외상표출원인의 편의를 증대시켜 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대학·공공(연) 특허기술 활용성과 확산, 소통과 협업으로 푼다

범부처 협업 기반의 'R&D IP Tech Fair 2014' 개최

특허청은 범부처 협업 기반 지식재산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IP Tech Fair 2014」를 지난 7월 4일 The-K 서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대학·공공(연)과 미래부·국토부 등 각 부처의 R&D 수행기관, 공공기술 이전기업 그리고 이전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기관 등 각 지식재산 사업화 주체들이 참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매칭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 연구개발 및 기업 성장 자본을 연계해 궁극적으로 기업이 수익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사 1부에서는 기술사업화 우수기관(3개 기관)과 공로자(2명)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국립암센터, 전자부품연구원과 송용석 책임연구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과), 차성욱 과장(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시상과 범부처 협업 기반의 '지식재산 사업화 생태계 추진'에 대한 경과보고와 국토·교통 산업기술 분야의 성공사례가 발표됐으며, 특히 영국 옥스퍼드대학 ISIS의 Andrew Barber 박사가 '사업화 주체 간 협업, 옥스퍼드 대학의 사업화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해외의 기술이전 선진사례를 소개했다.

2부 행사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기업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 기술니즈 설명회와 지식재산 투자설명회 그리고 해외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기업 기술니즈 설명회에서는 국토·건설·환경 등 산업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11개 기업의 기술니즈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기술이 매칭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재산 투자설명회에는 특허청이 출자한 14개 특허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가 참가해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도입한 10개 기업에 대해 투자심의를 했다.

특히 해외 기술교류회에는 ISIS가 참여해서 우리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기술이 유럽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허청 이준석 차장은 "특허청은 본 행사를 통해 부처 간 협업과 지식재산사업화 주체 간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공 R&D 기술을 이전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가전산업, 사물인터넷 시대 진입

사물인터넷 가전 관련 특허 아이디어, 신제품으로 속속 출시

냉장고 내부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식품을 자동으로 주문하는 등 가전과 결합된 사물인터넷(IoT)은 종래 가전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가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은 향후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주도해 2020년에는 500조원 규모로 시장이 성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기술과 결합한 가전기술 특허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 급성장해 연평균 약 160건이 출원됐는데 이 시기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붐과 함께 업계의 장밋빛 시장전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유선인터넷과 PC기반 환경에서 시공간적 제한 때문에 제품화가 되지 않았던 특허 아이디어가 스마트폰과 무선데이터 통신의 보급 확대로 이런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속속 신제품으로 출시되고 있다. 특허출원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 건강과 취미, 사회 노령화, 전력요금을 반영한 사용패턴 변화 등 현대인의 생활상을 반영한 특허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날씨 정보를 전달받아 세탁코스 선택 시 날씨 정보를 반영하는 세탁기, 전력 요금정보를 수신해 일정치를 넘어가면 시청을 제한하는 TV, 문 손잡이를 통해 체성분, 맥박, 체온 등 사용자의 건강을 수시로 체크한 후 병원으로 전송하는 냉장고, 화재 발생 시 소방서 또는 사용자에게 화재 신호를 전송해주는 에어컨 등이 특허출원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사물인터넷 가전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의 합종연횡도 주목된다. 올 초 구글은 홈오토메이션 기업 '네스트(Nest)'를 인수했고, 애플도 하이얼, 필립스, 허니콤 등의 가전회사와 제휴해 사물인터넷 가전사업 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가전기업인 보쉬도 사물인터넷 자회사 '보쉬 커넥티드 디바이스 앤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가전기술을 확장 중이며, GE 역시 IBM, AT&T, 시스코, 인텔과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IIIC)'을 발족해 사물인터넷 가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에서 사물인터넷 가전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미국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을 통해 세계 최대 가전시장을 되찾으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청·신한은행,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신한은행은 지난 6월 26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특허청과 신한은행은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발굴 및 육성,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시행,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수수료 지원 등에 관해 업무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 동안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과 IP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IP담보대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 하에 IP금융의 시중은행 확산을 위해 노력했으며, 신한은행과는 올해 초부터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신한은행은 작년 7월, 여신기획부 내에 기술평가 전담부서인 산업 기술평가팀을 신설하고 기술형 창업기업을 위한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본격적인 지식재산 금융 시행을 위해 특허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사항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확대에 관한 업무협약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신한은행은 기술금융을 시행하면서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특허 정보와 이와 관련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으며, 특허청 역시 수년에 걸친 다양한 지원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현재까지 구축해온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향후 구축 방안에 대해 협업하며 새로운 IP금융 상품 개발에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 구축

강원 'IP 창조 Zone' 개소

특허청은 지역의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화해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원 IP 창조 Zone'을 지난 6월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소했다고 밝혔다.

'IP 창조 Zone'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지역에 지자체와 협력해 구축된다. 창작교실-특허연구실-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창의적 아이디어의 지식재산권화와 사업화 연계를 지원한다.

창작교실은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발명기법과 아이디어 검색, 도출, 구현에 대해 교육한다. 특허연구실은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수행하고, 우수 기술에 대해 권리화를 지원한다. 또한, 창업보육실은 지역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사업화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특허청 차장, 도의원, 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IP 창조 Zone' 개소를 축하했으며 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IP 창조 Zone'은 강원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개소될 예정이다. 교육비 및 기타 부대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며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강원과 대구, 광주, 부산남부 지식재산센터(홈페이지 www.rip.org 참조)로 문의하면 된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IP 창조 Zone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의 권리화·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고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IPA NEWS

부산지회, 제9대 회장 취임식 개최

부산지회는 지난 7월 10일, 제9대 회장 취임식(9대 : 태양상사 정기상 회장)을 부산 서면 골든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을 비롯해 배상태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장, 우리회 부산지회 회원, 발명인 180여명이 참석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정기상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는 부산의 모든 발명인들이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부산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회장은 “창조경제의 힘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업과 연계해 힘 있는 특허기업을 육성하는 것에서 나오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 모두 창의적인 발명마인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산지회에서 올해 추진하고 있는 IP 창조 Zone 사업과 관련해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라는 목표로 함차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명도시 부산을 완성하기 위해 재임기간 동안 온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부산지회가 정기상 회장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해 부산 및 경남지역 시민 및 기업들이 활발한 창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기업경영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남권 지식재산 창출 및 사업화의 전문기관이자 핵심기관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지회는 1992년 3월에 설립돼 부산지역 지식재산인력양성, 발명진흥사업,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활동지원 등 발명자변 혁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정기상 부산지회장

- 현 태양상사 대표이사
- 현 태양산업 대표이사

수상 : 부산시장 표창 2006.05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08.03

지식경제부장관상 2012.5

(제10회 부산·경남 우수직무발명인 포상식)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2.10



우리가 '글로벌창업이민센터로 지정 지식재산으로 기술중심의 외국인 창업 돕는다

우리회가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선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OASIS-VISA Support Center)'로 지정됐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해외 고급인력 및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종합지원해 국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이민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우리회와 함께 서울산업진흥원(서울글로벌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기술벤처재단), 광주과학기술원(창업진흥센터) 등 4개 기관이 지정받았다.

우리회는 '기술중심'의 외국인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교육 및 출원지원, 발명창업대전 개최 등 지식재산과 관련된 영역을 담당하게 된다. 올해는 지식재산교육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국내 출원지원, 발명창업대전까지 확대한 맞춤형 지식재산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6일에 개강한 제1차 지식재산 교육은 6월 5일까지 총 8일 과정으로 진행됐다.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총 13개국 26명이 수강했으며 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직업군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오는 10월에도 같은 과정이 2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통해 교육, 멘토링, 사업화, 창업대전 등을 지원 받은 참가자는 각 단계를 수료 또는 입상한 경우 창업비자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데,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법인을 설립하고 창업비자 점수(80점 이상)를 획득하게 되면 창업비자(D-8-4)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창업비자 소지자가 3년 이상 국내 체류하고 3억 원 이상의 투자금 유치와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할 경우 영주(F-5)자격까지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조은영 부회장은 "우리회는 지난 40여 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그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외국인 기술창업에 적용해 창업이민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일본시장 진출 우리회와 유빅-페이턴트 파트너스 MOU 체결

최근 시스템을 이용한 특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회는 일본 유빅-페이턴트 파트너스(UBIC-PatentPartners, 이하 UBIC-PP)와 지난 5월 28일 도쿄 웨라톤 미야코 호텔에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일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우리회는 미국특허 분석 및 평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일본 내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서비스를 제공하고, UBIC-PP는 일본 현지 고객에 최적화된 특허분석평가시스템 활용전략 정기 세미나 개최, 광고집행 등 현지 실정에 맞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일본 내 특허분석평가시스템 수요자 발굴 및 고객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UBIC-PP는 아시아 언어에 특화된 이디스커버리(e-Discovery, 전자증거개시) 솔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시아 시장 1위의 전문기업인 UBIC의 자회사다. UBIC은 2007년 일본 TSE 주식거래소 상장에 이어 2013년 미국 나스닥(NASDAQ) 증권 거래소에도 상장됐으며 주요사업 분야는 기업 M&A 관련 법률자문, 국제소송 관련 이디스커버리 및 특허관리 컨설팅, 기업 정보관리 보안 등이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일본시장에 진출하게 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은 우리회가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2010년 4월 출시해 현재까지 기업, 대학, 출연연 등 128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2013년 3월 출시된 미국특허서비스의 경우 한국전기연구원, 농촌진흥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의 기관이 이용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왼쪽부터 조은영 부회장(한국발명진흥회), 시라사카 하지메 대표이사(유빅-페이턴트 파트너스)

미국 지식재산 전략 세미나 열어

우리회는 지난 5월 30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지식재산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회 회원사, 기업·대학·변리사 등 특허담당자, 미국 지식재산권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워싱턴 대학교 법학대학 토시코 다케나가 교수의 '애플 VS 삼성의 표준 필수특허에 대한 비교법 관점에서의 금지령 소개'와 Bracewell & Giuliani 더글러스 에프 스투어트 변호사의 '공정한 로열티 계산',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손해배상액과 제조업체의 손익'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제8회 IPAT 성적우수자 시상식 개최

우리회는 지난 6월 18일 제8회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Intellectual Property Ability Test 이하 IPAT) 성적우수자 시상식을 19층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IPAT은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시행하는 국내 유일의 지식재산능력 검정시험으로 올해 8회째를 맞이해 총 1,970명이 접수해 지난 5월 24일 전국 9개 지역 12개 고사장에서 동시 실시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최우수 점수 획득자 정찬길(40·삼성중공업 특허파트 근무) 씨에게 상금 100만원, 차순위 고득점자 권기영(39·특허컨설턴트) 씨에게 상금 50만원, 성적 우수자 공병기(26·연세대), 이다영(26·이화여대), 신완재(27·단국대) 씨에게 각각 상장과 상금을 지급했다.

정찬길 최우수상 수상자는 "IPAT이 산업계 종사자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서 "앞으로 이론과 경험이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특허 경쟁력이 한층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회 조은영 부회장은 "해마다 IPAT에 응시하는 분들의 지식재산 역량이 높아지고 있어 기쁘다"면서 "지식재산 시대를 맞이해 앞으로도 IPAT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우리회·특허청·중앙과학관
MOU 체결**

우리회는 특허청과 국립중앙과학관과 지난 5월 27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미래창의인재 육성과 과학·발명 대중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의 인재 육성과 과학·발명 대중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전 계층의 지식재산 대중화, 과학·발명 융합교육 및 문화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협약했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의 무한상상실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 발명·지식재산 기반의 과학교육 추진, 청소년 대상 지식 재산 및 과학·발명 융합교육 촉진, 청소년발명기자단·꿈이기자단 공동 활용을 통한 과학·발명문화 확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무한상상실 내에 지식재산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과학관 내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에 특허심사관·변리사 등을 활용한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 발명·과학교육 과정의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지식재산 및 발명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진로·직업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미래창의인재 육성에 혁혁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북지식재산센터,
전북TP에 새 등지 마련**

전북지부 전북지식재산센터가 지난 5월 30일 전북테크노파크(TP)에 새 등지를 마련했다.

전북지식재산센터는 개소식과 헌판 제막식을 갖고 지식재산창출활용 사업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회 조운영 부회장을 비롯해 특허청, 전라북도 관계자와 IP 경영인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지식재산센터는 전북도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매칭한 17억 원으로 창업초기 기업에는 IP Start-UP으로 선행기술조사·특허출원 지원을 하게 된다. 성장기에는 IP Scale-UP으로 디자인·브랜드 개발 및 맞춤형 PM 지원, 성숙기에는 IP Star기업에 경영전략 기반의 특허·브랜드·디자인을 종합 지원하는 등 기업 역량에 맞춰 3단계 지원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센터에서는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식재산관련 민원상담,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지역 발명경진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지식재산센터는 향후 지식재산 권리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IPA 인사동정

신규임용

오국진 계장	계장(5급)에 임함. 사업지원본부 한국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근무를 명함.(2014. 5. 1)
--------	---

전보

김종택 선임연구원	강원지회 근무를 명함. (2014. 5. 26)
-----------	----------------------------

직제개정에 따른 보직 재발령

이경표 부장	경영기획본부 기획부장에 보함. (2014. 7. 1)
이주형 과장대리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유정호 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송재우 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원희재 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명희 계장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경호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선민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신수광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권용준 주임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손재희 사원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두성 부장	경영기획본부 총무부장에 보함. (2014. 7. 1)
한창희 과장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나기성 과장대리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은영 과장대리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신광식 선임기사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서인철 계장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윤용일 계장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강은구 계장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혜경 주임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경희 주임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홍성일 부장	경영기획본부 지식재산부장에 보함. (2014. 7. 1)
허동욱 차장	경영기획본부 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종철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은희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백종현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지병석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황해진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경환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임달문 계장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장인준 주임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현우열 주임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손다운 주임	경영기획본부 지역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유태수 차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장에 포함. (2014. 7. 1)
윤종철 과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동환 과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성욱 과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신경호 과장대리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연효진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서주현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유동환 주임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최성훈 주임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범규 주임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에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승보 과장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장 직무대리를 명함. (2014. 7. 1)
배재욱 과장대리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유주현 계장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임지나 주임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희승 주임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곽유미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용규 부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장에 포함. (2014. 7. 1)
정정숙 과장대리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임응수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전윤정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보람 계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준영 주임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황진원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윤웅채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KIPA 인사동정

정연우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조일형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현익 전문위원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운선 과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장에 포함. (2014. 7. 1)
김종현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양진수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민선홍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민홍규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현승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손승욱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설경범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상미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안인영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은총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전효원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명선우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유미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박일룡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권준영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강다혜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최용준 주임연구원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나문용 전문위원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순재 전문위원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백인홍 부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장에 포함. (2014. 7. 1)
김재권 과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수진 과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현태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최동호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강 호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구분원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무청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윤하영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상욱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누리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신재호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강정화 전문위원	인재개발연구본부 지식재산인력양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한정무 차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장에 포함. (2014. 7. 1)
이은성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연민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태원 과장대리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서원택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전정림 계장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김수진 주임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양영모 선임연구원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이건환 선임연구원	인재개발연구본부 창의인재육성부 근무를 명함. (2014. 7. 1)

팀장급 전보

민봉기 부장	사업지원본부 지식재산진흥부장에 보함. (2014. 7. 7)
이경표 부장	인재개발연구본부 발명영재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를 명함. (2014. 7. 7)
유태수 차장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장에 보함. (2014. 7. 7)
김운선 과장	경영기획본부 기획부장에 보함. (2014. 7. 7)

승진

이주형 과장대리	과장(3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유주현 계장	과장대리(4급)에 임함. 사업지원본부 국제사업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유정호 계장	과장대리(4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기획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윤용일 계장	과장대리(4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이혜경 주임	계장(5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총무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안인영 주임	계장(5급)에 임함. 인재개발연구본부 평생교육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장인준 주임	계장(5급)에 임함. 경영기획본부 지식재산부 근무를 명함. (2014. 7. 7)

파견 연장

송상엽 과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파견연장을 명함. (2014. 7. 16)
--------	-----------------------------------

퇴사

김범규 주임	지식재산진흥부.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4. 7. 20)
--------	--



발명특허의 모든 것 “보고, 듣고, 생각하다”

5+6월호 리뷰

지식재산 전문정보지 [발명특허]는 매호마다 각각의 콘텐츠에 대한 ‘2014 모니터링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으며, 이 코너에 주요 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감과 소통의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난 5+6월호에 대한 모니터링단의 주요 의견입니다.

● 이석진 (특허 컨설턴트, 34세)

〈Creation - 김영세 이노디자인 대표 인터뷰〉 - 김영세 대표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다. 몇 년 전 아모레의 슬라이딩 콤팩트를 성공시킨 바 있으며, 그때 L모사의 선행기술조사를 의뢰받아 관련 특허를 조사해본 경험도 있다. 이후 아이리버 (레인컴)와 MP3플레이어 등의 디자인을 작업하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별다른 소식을 듣지 못했다. 발명특허를 통해 최근 근황을 알 수 있었다는 반가움과 자신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수없이 스케치로 기록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 숨은 동력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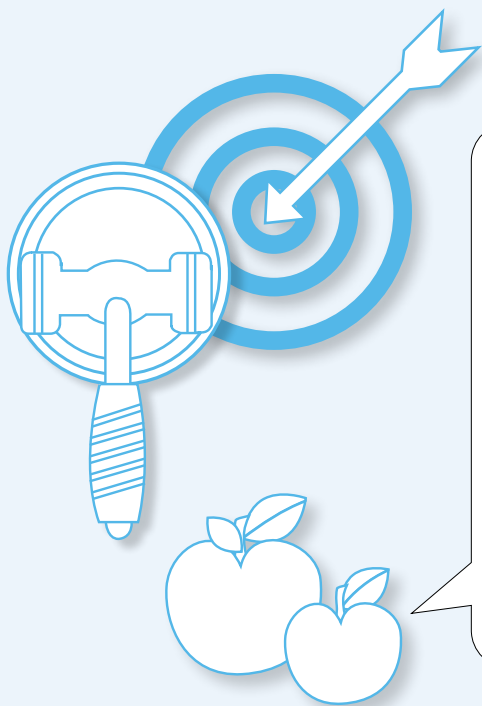


● 김중찬 (대학생, 23세)

〈KIPA NEWS〉 -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특허정보를 활용해 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구축된 평가 모형을 통해 특허평가 서비스와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분석 평가시스템’ 기사를 읽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했지만 그 이상의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 ‘특허분석평가시스템’을 이용자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안내하는 칼럼이 〈발명특허〉에 다시 한 번 실렸으면 한다.

〈IP FOCUS〉 - 특허동맹과 직무발명 이야기는 일반 기업들에게 좋은 정보이다. 기업의 특허 분쟁으로 말미암아 돈과 시간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회사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해 도출한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면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와 같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알아야 하는 특허제도 관련 기사가 시리즈로 실린다면 더 좋을 것 같다.





● 정진우 (대학원생, 27세)

<IP FOCUS> - '뉴턴의 사과, 특허로 경제를 말하다'라는 기사가 좋았다. 그간 특허를 공부하며 특허발명의 권리관계와 그 발명에 대한 권리행사 부분에만 관심을 가졌지 발명을 통한 수익창출 등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 특허와 관련된 특허법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IP FOCUS> - '직무발명,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다'라는 기사는 요즘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점에서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글의 내용도 직무발명의 이론 및 관련법의 주요내용 소개와 적적할 사회적 이슈관련 문제들을 언급하며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와 정보습득과 관련 내용에 대한 생각을 함께 해볼 수 있는 좋은 내용의 기사였다.

● 한명우 (직장인, 49세)

<IP FOCUS> - 평소에 발명가로 활동하면서 일반 자유발명과 직무발명의 기준과 제도가 애매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직무발명,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다'란 칼럼에서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에 대한 개념을 사례로 설명해 이해에 도움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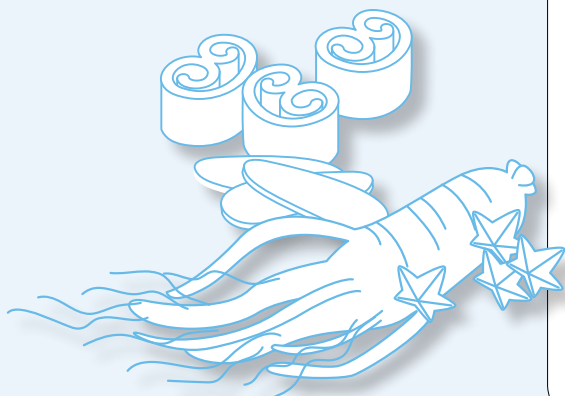


● 김서정 (주부, 33세)

<지식더하기, 기술나누기>- (주)진생사이언스에 대한 기사는 다시금 생활에 자극을 주는 기사였다. '홍삼과 산삼보다 뛰어난 인삼 개발'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두드려 결국 그 문을 열고 '산삼'이라는 귀중한 결과물을 얻게된 기사를 읽고 있자니, 목표를 위해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나아가는 모습이 많은 독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기사였다.

또한 (주)진생사이언스가 여러 해를 거듭해 얻은 결과물이 시장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한국발명진흥회의 모습을 보니, 알게 모르게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추가로 (주)진생사이언스나 '네일 사이너'에 대한 관련 특허 정보(출원번호나 등록등 관련 상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좀 더 정확한 정보가 독자에게 제공될 수 있었을 것 같다. 특히 '네일 사이너'는 제품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정보가 필요한 것 같다.



KIPA QUIZ

Readers Comments



● 2014년 7+8월호 퀴즈

- Q.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안정적인 주행환경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변상황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 주행 경로를 계획하는 등 운전자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 주행이 가능한 인간친화형 자동차 시스템에 로봇기술이 접목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 Q. 지역의 예비창업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지식재산권화해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창작교실-특허연구실-창업보육실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올해 시범적으로 강원, 광주, 대구, 부산 지역에 지자체와 협력해 구축되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2014년 5+6월호 퀴즈 정답

01. 크로스 라이선싱(Cross Licensing)
02.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1)

● 2014년 5+6월호 퀴즈 당첨자

전경욱 jku****@naver.com (경기도 평택시)
이춘임 leechoon****@naver.com (경기도 포천시)

● 감미야 독자 (경기도 시흥시)

삼성, 구글, 시스코 3자 특허동맹은 앞으로 IT업계의 지속적인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범인류적 차원의 기업 마인드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생존을 위한 경쟁구조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는 지식기반사회의 건강한 성장에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기술 개방과 폐쇄에 있어 모범적 사례로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현정 독자 (인천시 남동구)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직무발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은 궁금증과 함께 <발명특허>를 통해 제 삶이 보다 지적이고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직무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는 직원에 대한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회사와 직원을 주종관계처럼 인식하던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지식재산 전문정보지[발명특허]를 읽고 퀴즈의 정답과 독자의견을 pk6122@kipa.org로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9월 15일)

원고 모집 안내

한국발명진흥회가 발간하는 「발명특허」는 발명진흥사업 등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정보를 다루는 전문정보지로 본회 회원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고 투고를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원고 모집 안내

「발명특허」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 의견과 정책·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간되는 지식재산 전문정보지입니다.

콘텐츠 중 [IP Focus]에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정보를 선도하고 정책·기술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투고를 받고자 합니다. 단, 길고 딱딱한 글이 아닌 신문의 칼럼 형식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는 원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모집 분야: 지식재산권 관련 칼럼
- 원고 주제: 관련 분야별로 자유롭게 선택
- 원고 분량: 원고지 22매~24매(A4용지 10Point, 3매 이내)
- 모집 시기: 상시 모집
- 보내실 곳(E-mail) : pk6122@kipa.org

● 한국발명진흥회 지회·지부 안내

지회·지부	지회장·지부장	사무국장	주소	연락처
부산지회	정기상	김유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가야동) 새마을회관 6층	051-645-9683
광주지회	김보곤	김 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 8번로 177, 경제고용진흥원 2층	062-954-3841
강원지회	김윤호	김현웅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보듬관 403호	033-264-6580
전북지부	-	정승원	전라북도 군산시 산단남북로 169(오식도동) 2층 9호	063-471-1284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안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촉진과 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창조적인 기술개발 유도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목적

-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촉진
- 직무발명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보상문화 정착 및 사전 분쟁 예방
- 직무발명을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인증제 개요

- 직무발명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 지원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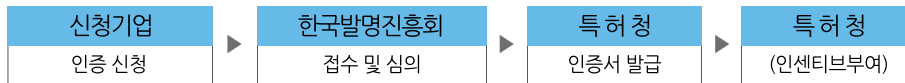
신청 자격

-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직무발명 보상사실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인증 절차



인증심의 기준

- 평가 기준 : 직무발명보상규정(20점), 보상실적(40점), 운용의 합리성(40점)
- 인증 기준 :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자격부여
-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가점부여
(특허청) 민간 IP-R&D 연계전략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지원사업,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제품공정 개선기술개발사업 등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등 3개 사업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인증 중소·중견기업의 4~6년분 등록료 감면(2년간) (2014.03.01. 일부 적용)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4년 3월 3일부터 연중 수시접수 (발급수수료 : 무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신청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부 (02-3459-2845, 2793 / 2845@kipa.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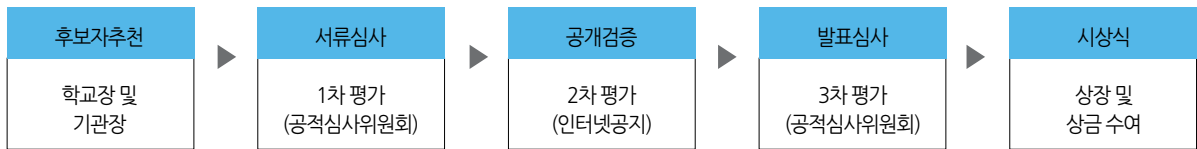
2014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공고

선발개요

• 선발 및 포상규모 : 7명

구분	인원	상격	상금	자격요건
발명교육확산분야 (4명) 발명교육기반조성분야 (2명)	대상	1명	300만원 (소속학교 : 200만원)	교사 (수석교사포함)
	우수상	5명	200만원	
공로상	1명	특허청장상	200만원	교장·교감

선발절차



※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 - 공개검증 - 발표심사의 3단계 심사

자격요건 및 대상업적

-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현직 교원으로 발명교육 확산 및 문화조성에 공헌한 자
- 대상업적 : 최근 3년간의 공적 (2011.3.1.~2014.2.28)
 - ※ 최근3년 :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공적을 모두 포함함

선발일정(안)

- 추천서류접수 : 2014. 9. 1(월) ~ 9. 30(화)
- 심사(서류심사/공개검증/면접) : 2014. 10. ~ 11
- 최종발표 : 2014. 12. 20(예정)
- 시상식 : 2015. 2월 중 (2015 발명교육컨퍼런스)
 - ※ 위의 일정이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창의인재육성부 발명교육대상 담당자(02-3459-2753)
- 세부사항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 발명교육 교수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www.ip-edu.net)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단위: 원)

지식재산 일반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환급/지원	수강료(회원사)
1	02.12~02.14	지식재산권 기초 1기	노동부 환급 15~20% 환급	각 과정당 55만(48만)
2	02.19~02.21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1기		
3	02.26~02.28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1기		
4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전기·전자·기계)		
5	03.05~03.07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1기(화학·생명·바이오)		
6	03.19~03.21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1기		
7	03.26~03.28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1기		
8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전기·전자·기계)		
9	04.02~04.04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1기(화학·생명·바이오)		
10	04.09~04.11	미국특허분쟁 및 소송 대응전략		
11	04.23~04.25	특허기술가치평가 실무		
12	05.14~05.16	지식재산권 기초 2기		
13	06.18~06.20	강한 상표를 위한 출원 및 사업화전략(브랜드마케팅까지)		
14	06.25~06.27	특허정보검색 및 특허맵 구축전략		
15	07.16~07.18	강한 디자인 창출 및 출원전략(도면까지)		
16	08.27~08.29	지식재산권 기초 3기		
17	09.03~09.05	미국특허출원 및 중간사건 대응전략 2기		
18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전기·전자·기계)		
19	09.17~09.19	특허청구범위 해석 방법과 침해판단 2기(화학·생명·바이오)		
20	09.24~09.26	기술이전 및 라이선싱 계약서 작성 실무 2기		
21	10.06~10.08	특허 검색기초 및 특허성 판단 2기		
22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전기·전자·기계)		
23	10.15~10.17	특허명세서 작성 및 리뷰 SKILL UP 2기(화학·생명·바이오)		
24	10.22~10.24	주요국(IP5) 특허출원 및 OA 절차 2기		
25	11.05~11.07	지식재산권 기초 4기		

IP강사 양성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5.19~05.20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1기	각 과정당 30만
2	05.26~05.27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2기	
3	08.13~08.14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3기	
4	10월 중	지식재산 전문교수요원 양성교육(T2L) 4기	



한국지식재산센터



제1교육장



제2교육장



교육생 휴게실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캠퍼스 2014년 교육일정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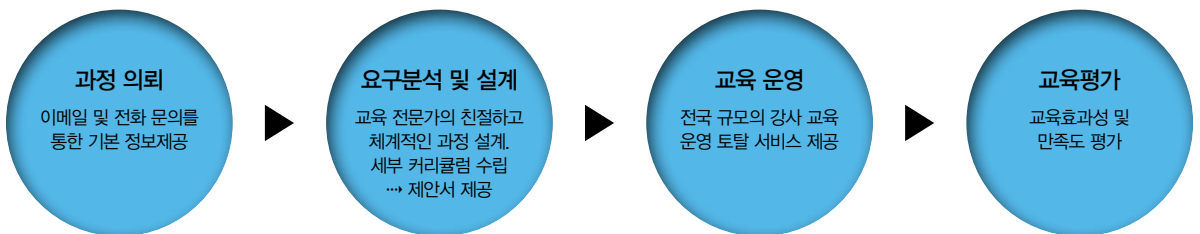
(단위: 원)

지식재산 특별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회원사)
1	03.14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1기	각 과정당 18만(15만)
2	04.18	중국의 IP이슈	
3	05.02	특허분쟁 발생시 단계별 대응전략	
4	06.05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1기	
5	06.13	PCT 출원마스터	
6	07.04	직무발명 신고 및 보상절차, 보상액 산정	
7	07.11	특허소송 시 변론능력 SKILL UP	
8	08.08	모바일산업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9	08.18	IP R&D(제품수명 주기에 따른 특허전략)	
10	08.22	해외 특허출원 비용 및 기일관리 전략 2기	
11	09.12	영문 지식재산권 용어 및 영문레터 작성 노하우 2기	
12	10.02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	
13	10.28	각국별 상표출원 및 마드리드 출원전략	
14	11.27~11.28	특허법원 최신판례 동향(판사초청)	

지식재산 전문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06.24~07.24	특허엔지니어 양성교육과정 (특허 명세서 실무인력 양성) 5주간 일주일에 2회(화, 목) 7~10pm	80만
2	9월 중		
3	11월 중		

지식재산 국제교육			
번호	일자	과정명	수강료
1	10월 중	지식재산 실크로드_독일(해외연수)	추후 공지

맞춤형 단체위탁교육



- 상기 교육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ipcampus.net>)
- 회원사: 한국발명진흥회 회원사의 경우 할인가 혜택 제공

2014대학교수를 위한 찾아가는 T3 운영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전국 대학 교수 대상으로 2014년도 대학 교수를 위한 찾아가는 T3(T3, Teaching the Teachers)를 운영합니다. 관심있는 대학 및 교수님의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립니다.

사업목적

- 대학 교수를 지식재산권 창출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고, 대학별 자립형 지식재산 교육 기반 구축
- 찾아가는 교육 진행을 통해 편의성 향상 및 만족도 제고

사업내용

- 프로그램 : 대학교수를 위한 지식재산 프로그램(찾아가는 T3)
- 교육기간 : 2014년 9월~11월(16시간 교육)
- 교육장소 : 참여 대학 캠퍼스 내 세미나실
- 교육대상 : 2개 대학 선정운영
- 교육내용 :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희망 교육내용 수렴운영)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4. 7. 14(월)~8. 22(금)
- 신청서류 : 온라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 (www.iphuman.or.kr)

사이트 접속



로그인



T3 교육신청



찾아가는 T3 신청

- 신청문의 : 이누리 주임(Tel. 02-3459-2803)

기타사항

- 교육 후 수료증 발급
- 교육비 및 식비 무료

나에게 **꼭** 맞는 취업 정보 쉽게 찾을 수는 없을까요?

최신 채용정보와 지식을 공유 할 수 있는
지식재산 인재들을 위한 취업포털 사이트에
지금 바로 접속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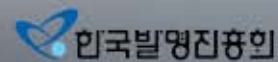
ipin (www.ipin.or.kr)에는

인재가 희망하는
지식재산기업 채용정보와
기업이 원하는 지식재산 인재정보로
가득합니다.



ipin 제공서비스

- ▶ 지식재산분야 채용 및 인재정보
- ▶ 지식재산분야 최신뉴스 및 교육/행사정보
- ▶ 각종 지식재산 정보와 취업 노하우 공유
- ▶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게 만나는 모바일
IPIN(m.ipin.or.kr)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됩니다

주민등록번호
900807-1234567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할 때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는 법령이 없다면, 수집하지 마세요.
유출되면 최대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 :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안전행정부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갑니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기관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업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안전행정부
www.gov30.go.kr



여름휴가 고민인가?

'농촌으로 떠나는 힐링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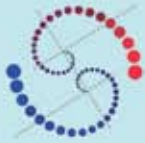
백! 끝!



올 여름 나만 아는 비밀 여행지 '농촌마을'로 떠나자 -!

- 농촌진흥청 테마마을
- 농가맛집
- 농촌교육농장





SEOUL ICM 2014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세상을 바꾸는 힘, 미래를 여는 수학”

International Congress of Mathematicians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2014. 8. 13.(수) - 21.(목) | 서울 코엑스


4년마다 열리는 수학 올림픽
수학 노벨상 '필즈상' 시상식
기초과학분야 최대의 국제학술대회
전 세계 5,000여 명이 참가하는 수학축제


프로그램

- 주요행사 | 개막식 (필즈상 시상식 포함), 환영연, 공식만찬, 폐막식
- 시상내역 | 필즈상, 네반리나상, 가우스상, 천상, 필라바티상
- 초청세션 | 기초강연, 초청강연, 패널토론, 수상강연, 특별강연 등 250여 회
- 일반세션 | 19개 분과별 일반강연 1,100여 회
- 대중강연 | 13일 - 게임스 사이언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명예회장)
20일 - 필라바티상 수상자 (수학대중화 기여 부문 수상자)
- 전 시 회 | IMAGINARY 체험전, 학술 전시, 대중전시
- 문화행사 | 바둑 행사, 수학영화 상영 등


※ 후원 및 기부 문의: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Tel. 02-563-2014)


주 최 |  국제수학연맹


주 관 |  2014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조직위원회

협력단체 |  kms

후 원 |  미래창조과학부

 서울특별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KIAS

 KOFST

문의처 | 서울세계수학자대회 사무국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원 신관 710호

전화: 02-563-2014 이메일: icm@icm2014.org 홈페이지: www.icm2014.org/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SEOULICM2014



할머니, 할아버지 기초연금 받으세요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은 상생연금입니다. 더 필요한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자녀세대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제도 안내

"7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뀝니다."

시행시기 2014년 7월 1일 (첫 지급일 : 7월 25일)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종료 됨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 콜센터 (☎129), 국민연금콜센터 (☎1355), 읍·면·동 주민센터

시행 안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도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에 신청해주세요. (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7월 7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별도 기초연금 신청 불필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후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은 7.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이미 만 65세가 되신 분들은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음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기초연금 신청 및 접수비 명목으로 어르신들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주겠다면서 접근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마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상담에 따라 달라짐
위험할 땐 119, 힘들 땐 129
☎ 129 상담 센터 (주말, 공휴일 제외)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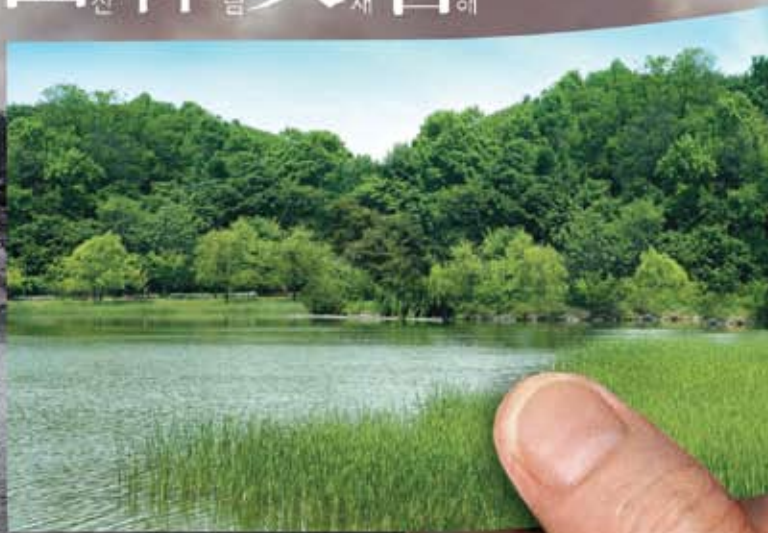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山林災害

산림재해



피할 수는 없어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산불, 병해충, 수해로 인한 산림재해 한 순간의 방심으로도 소중한 가꾼 숲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산림청은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통해 소중한 숲을 지키고 관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숲은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플러그를 뽑는 우리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 생활 습관은 절전.
전자제품을 쓰고 난 후
쓰지 않는 플러그까지 꼭 뽑는 우리 엄마,
어때요? 칭찬 받을만 하죠?

여름철 전력 피크시간

14:00 - 17:00



여름날, 고맙습니다!

칭찬할 때! 이벤트

무더운 여름,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힘이 되는 칭찬 한마디를 건넬하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칭찬할래이를 시작합니다.
www.powersave.or.kr

가정



- 안보는 TV 끄기
- 청소기 사용 자제
- 에어컨 사용 자제

사무실



- 물컵시 알기
- 점심시간 컴퓨터 끄기
- 선풍기 사용하기

상온



- 문열고 냉방 자제
- 적정온도 냉방
- 전등 끄기

THE 3rd
정부 3.0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



내게 맞는 일자리가 있는 곳



따뜻한 복지가 함께 하는 곳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는 곳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곳



고용복지+센터 일자리와 복지를 한 곳에서!

우리 가족 행복을 더해주는 곳



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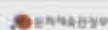
이제는 고용센터, 새일센터, 주민센터 등을
따로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고용복지+센터에서 한번에 해결하세요!
(www.workplus.go.kr)

고용 :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취업상담·일선 등
복지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복지종합상담
서민금융 : 신용회복지원, 미소금융·햇살론,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등

개소 지역



고용복지+센터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전국 버스·지하철
철도·고속도로를

교통카드 1장으로!

*교통카드 판매처(편의점, 가판점 등)에서 구입 충전 가능

*자세한 문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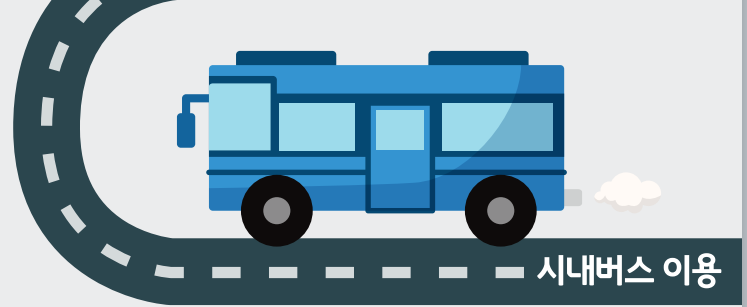
캐시비 고객센터 (www.cashbee.co.kr, 1644-0006)

티머니 고객센터 (www.t-money.co.kr, 1644-0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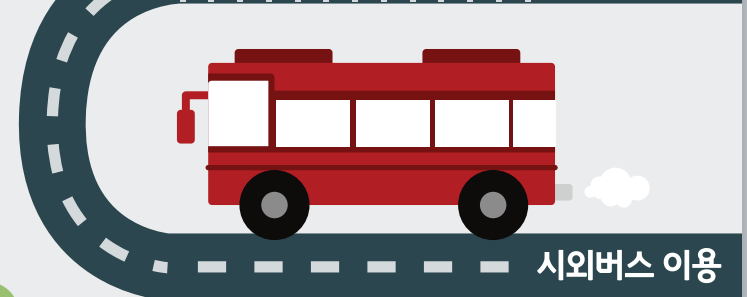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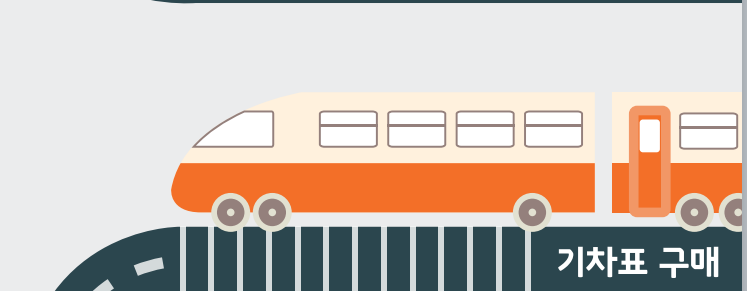
한페이 고객센터 (www.hanpay.net, 1566-1554)

레일플러스 고객센터 (railplus.korail.com, 1544-7788)

*일부 미개통 지역은 순차적 개통예정



*** 전국호환교통카드**
카드 한장으로 지역내 버스·지하철 뿐만 아니라,
철도·고속도로·시외·고속버스까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9.19 ~ 10.4 **함께 즐겨요!**

2014년 9월이 오면 45억아시아인 모두는 스타가 됩니다.
새롭게 아시아가 하나되는 자리, 모두 즐길 준비 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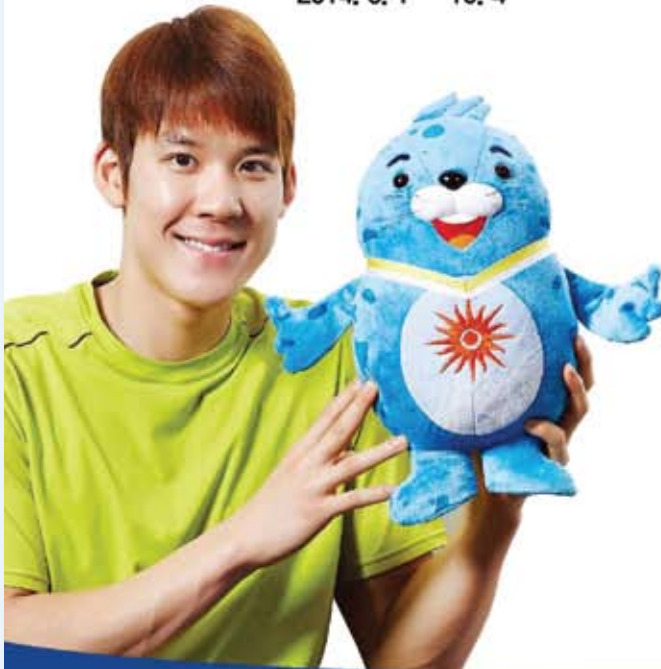
입장권 판매기간

- 2014. 4. 7 ~ 5. 31 (5%할인)
- 2014. 6. 1 ~ 10. 4



입장권 구매방법

- 인터넷 ticket.incheon2014ag.org
- 콜센터 ☎ 1599-4290
- 모바일 mticket.incheon2014ag.org



- 기 간 : 2014. 9. 19 ~ 10. 4(16일간)
- 장 소 : 인천광역시 일원
- 참가규모 : 45개국 23,000여명
- 주 최 :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Olympic Council of Asia)
- 주 관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IAGOC)
- 경기종목 : 36개 종목, 439개 세부종목

공식후원사 OFFICIAL PARTNER

주최(조직) 후원사 (Sponsor Partner)



주최 (Partner)



주관사 (Partner)



주최(조직) 후원사 (Sponsor)



여름철 우리 가족 안전! 위험기상 정보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여름철 위험기상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과 같이 주로 여름철에 발생해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상현상을 말합니다.



폭염이란?

건강을 해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심한 더위

[폭염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먼저, 기상정보 확인하기



1. 햇볕 노출 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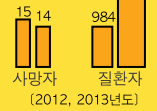


2. 물 충분히 마시기



3. 외출 자제하기

[폭염의 피해]



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태풍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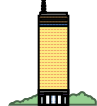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17m/s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저기압

[태풍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먼저, 기상정보 확인하기



1.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에 접근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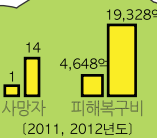


2. 낙뢰시 건물 안으로 대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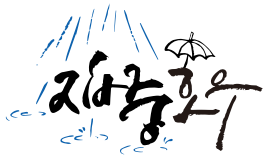


3. 산사태 위험지역에 가지 않기

[태풍의 피해]



출처 : 소방방재청



집중호우란?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현상

[호우특보 시 국민행동요령]

먼저, 기상정보 확인하기



1. 하수도, 맨홀에 접근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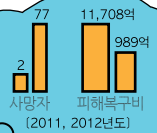


2. 침수도로구간에서 운전하지 않기



3.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확인하기

[호우의 피해]



출처 : 소방방재청

지방세

we tax
인터넷 지방세 종합 서비스

장학금신청



국가유공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아이 돌봄 상담

복지부정신고



헷갈리는
세금 문의 상담



고충민원



부패·공익침해 신고



기초생활지원



행정심판



원산지표시



성범죄자 우편고지



장애인등록



당신을 힘들게 만드는
복잡한 서류상담



수산물안전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국민결앓 110 정부민원 110

110 하나의 번호만 기억하시면, 정부 업무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제대기선

193개국 ICT 올림픽

2014 ITU 전권회의

국제전기통신연합

대한민국이 정보통신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일시 | 2014.10.20 ~ 11.7

장소 | 부산 벡스코 (BEXCO) 일대

2014년 10월, 세계 정보통신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ICT 올림픽이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립니다.
ICT 엑스포, 글로벌 ICT컨퍼런스, 스마트 한류 문화행사 등의 다채로운 ICT 행사가 펼쳐집니다.



Before



After





10% SALE

장보는 즐거움이 커집니다!

서민경제 활성화 및 소비심리의 단기회복을 위해 개인이 현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10%로 확대** 운영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웃과 情을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할인혜택

할인기간 : 2014년 6월 5일 ~ 9월 5일
 ▶ 단, 1,000억원 소진시 10% 할인은 조기종료 될 수 있음
 할인한도 : 1인 30만원/월
 ▶ 신분증 필수 지참, 1회 2인 이상 위임 불가

구매처

지류상품권 : 새마을금고, 신한, 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전자상품권 : 기업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신한, 농협은행(충전식), BC카드(법인판매)

사용처

전국의 1,200여개 가맹시장 및 상점에서 현금처럼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가맹점에서 액면 금액의 60% 이상 구매시 잔액은 현금으로 바로 환불해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 문의

기업 성공 도우미 **1352-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4번



※ 전자상품권은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쇼핑 mall.ePOST.kr, 인터파크 비즈마켓 www.e-jangter.com
 이지유펜터 www.onnuri-sijang.com, 제주상인연합회쇼핑몰 www.market.jeu.kr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평창 2014

2014.9.29 - 10.17 | 강원도 평창

www.cbdcop12.kr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진도로 떠나는 여름휴가



올여름 진도의 아름다움과
수산물로 힐링하세요!

www.kipa.org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창조와 도전으로 반짝이는
'발명특허'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